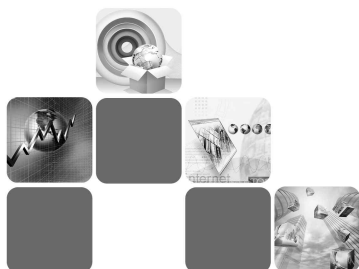


2022-12호

# 월간 ICT 산업 동향





# Contents

## I. 수출 동향 .....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 ⑥ 이차전지 |
| ⑦ SW         |        |

## II. 트레이드 GPS ..... 32

1. 인도 - PCB ..... 33
2. 블랙박스 ..... 38
3. Ex-Briefing ..... 42

## III. 부록 ..... 46

1. ICT 생산 통계 ..... 47
2. 2022년 11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 48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 55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3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 64





I

# 수출 동향



## I 수출 동향<sup>1)</sup>

### 1 개요

□ '22.11월 ICT 수출은 166.6억 달러(△22.5%), 수입은 128.4억 달러(0.6%↑) 기록

- (수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 따른 전방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5% 감소한 166.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 지속
  - 품목별로는 이차전지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미국, 일본, EU, 베트남 등 주요 국가 수출이 감소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전 체
전세계	86.6 (△28.4)	20.1 (△17.3)	13.8 (△6.2)	9.7 (△45.2)	7.4 (0.7)	166.6 (△22.5)
중국(홍콩)	44.2 (△38.4)	6.8 (△25.7)	8.6 (22.2)	2.9 (△53.2)	0.5 (△28.0)	70.2 (△30.2)
미국	5.3 (△37.3)	0.1 (△24.7)	0.6 (△58.2)	3.3 (△42.6)	3.6 (53.2)	18.4 (△25.9)
일본	0.8 (△40.0)	0.1 (11.2)	0.1 (△62.0)	0.4 (30.4)	0.5 (53.4)	3.1 (△17.2)
EU	1.6 (△35.3)	0.4 (79.7)	1.8 (19.5)	1.3 (△61.0)	1.2 (△39.7)	9.6 (△24.0)
베트남	12.6 (△8.9)	12.1 (△14.1)	1.3 (△49.9)	0.4 (130.3)	0.3 (△21.0)	30.0 (△15.2)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0.6% 늘어난 12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반도체(69.1억 달러, 13.3%↑), 이차전지(6.1억 달러, 38.4%↑) 등은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3.2억 달러, △19.0%), 휴대폰(5.7억 달러, △43.2%), 컴퓨터 및 주변기기(12.9억 달러, △6.8%) 등은 감소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27.5억 달러), 베트남(21.8억 달러), 미국(12억 달러), EU(3.4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38.2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2년		2021년	
		11월P	1~11월P	11월	1~11월
수출	전체 산업	519.1 (△14.0)	6,290.6 (7.8)	603.3 (31.9)	5,836.7 (26.6)
	ICT	166.6 (△22.5)	2,164.3 (5.3)	214.9 (30.0)	2,054.7 (24.1)
수입	전체 산업	589.3 (2.7)	6,716.2 (21.2)	573.6 (43.6)	5,539.3 (31.0)
	ICT	128.4 (0.6)	1,406.7 (15.5)	127.7 (23.1)	1,217.8 (19.4)
무역수지	전체 산업	△70.1	△425.6	29.7	297.3
	ICT	38.2	757.6	87.2	836.9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 2 반도체

### 1) 수출 환경

#### □ 올해 반도체 시장은 완만한 성장 기대, 내년은 메모리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반전 전망

- **(’22년 전망)** ’22년 반도체 시장은 6,1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성장이 기대되나 스마트폰, PC 등 세트 제품에 대한 수요 위축 및 재고 증가 등 성장 둔화 요인이 잔존(Gartner, ’22.9월)
  - ’22년 반도체 시장은 제품 공급 부족 완화로 3년 연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다만 고급리·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감소, 공급 과잉 등으로 성장 폭이 전년 대비 22.3%p 축소될 전망
    - ※ Gartner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22.3월) 13.6%↑ → (6월) 7.4%↑ → (9월) 4.0%↑로 지속 하향 조정
  - (메모리 반도체 : 1,666억 달러, 0.5%↑) 데이터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등의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서버용 수요는 견조하나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및 스마트폰, PC 등 전방 산업 제품 생산량 감소 등으로 종전 전망(14.5%↑) 대비 크게 하향 조정
  - (비메모리 반도체 : 4,519억 달러, 5.3%↑) 5G·IoT·AI 등 첨단 산업 분야와 전기차·자율주행 등 차량용 수요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23년 전망)** 수요 감소, 메모리 시장 침체 악화 등에 따라 5,964억 달러(△3.6%)로 하락할 전망
  - (메모리 반도체 : 1,396억 달러, △16.2%) IT 서비스 수요 확장세 위축으로 빅테크 업체 등의 서버용 수요 감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3년 만에 1,500억 달러를 하회하며 하락 반전할 것으로 예상
  - (비메모리 반도체 : 4,567억 달러, 1.1%↑) 첨단 산업 및 자동차 산업 분야 등에서의 수요가 견조함에 따라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폭은 1%대로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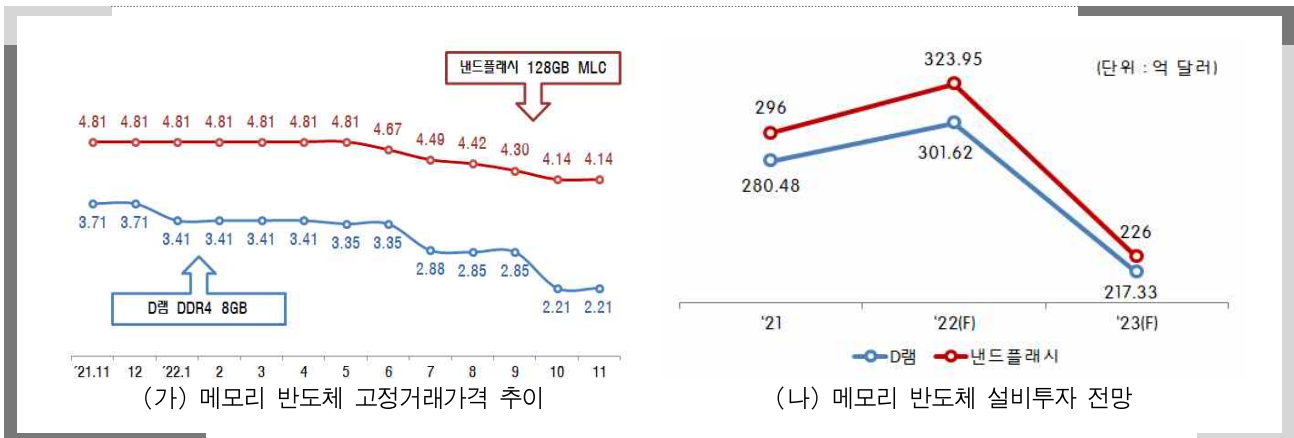
그림 1-1 전체 및 품목별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2.9.

## □ 메모리 고정거래가격 하락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전망

-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은 D램 및 낸드플래시 모두 '22.10월까지 하락 추세를 지속하며 '22.11월 보합을 기록. 다만 근본적인 단가 상승은 희박할 전망(Dramexchange, '22.11월)
  - 글로벌 경기 침체, 라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 재고 증가 등으로 '22.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은 하락 추세를 유지. 다만 '22.11월 반도체 공급 업체와 PC 등 세트 업체 등이 가격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고정거래가격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 (D램) PC용 범용제품(DDR4 8GB 기준)의 고정거래가격은 '22.11월 2.21달러로 전월 가격을 유지했으나 '21.9월 4.10달러로 고점 달성 후 전방 수요 감소, 재고 증가 등에 따라 하락 추세를 지속
    - ※ D램(DDR4 8GB 기준) 고정거래가격 추이(전월 대비) : ('21.10월) 3.71달러, △9.51% → ('22.1월) 3.41달러, △8.09% → (5월) 3.35달러, △1.76% → (7월) 2.88달러, △14.03% → (8월) 2.85달러, △1.04% → (10월) 2.21달러, △22.46%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 범용제품(MLC 128GB 기준)은 '21.7월 4.81달러로 고점 기록 후 11개월 연속 동가를 유지했으나 '22.6월 4.67달러로 반락. 이후 내림세를 유지하다 '22.11월 4.14달러로 6개월 만에 보합을 기록
    - ※ 낸드플래시(MLC 128GB 기준) 고정거래가격 추이(전월 대비) : ('21.7월) 4.81달러, △5.48% → ('22.6월) 4.67달러, △2.91% → (7월) 4.49달러, △3.85% → (8월) 4.42달러, △1.56% → (9월) 4.30달러, △2.71% → (10월) 4.14달러, △3.73%
-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하락, 매출 감소 등 시장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설비투자를 축소할 예정
  - (시장 전망) '2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D램(741억 6,000만 달러, △18.0%)과 낸드플래시(594억 1,870만 달러, △13.7%)가 모두 하락할 전망(Gartner, '22.9월)
  - 낸드플래시는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지속으로 '23.1분기에도 단가 반등 기미가 희미할 전망이며 D램의 평균판매단가는 10%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TrendForce, '22.12월)
    - ※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수요 대비 공급, Gartner, '22.9월) : (D램) '22.4Q(F) 108.0% → '23.1Q(F) 110.8% (낸드플래시) '22.4Q(F) 115.1% → '23.1Q(F) 111.1%
  - (투자 전망)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고정거래가격 하락 전망 등으로 제조업체들은 시장 침체에 대비해 '23년 연간설비투자를 대폭 축소할 전망
  - '23년 글로벌 D램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액은 217억 3,300만 달러로 '22년(301억 6,200만 달러) 대비 27.9% 감소를 예상. 또한 낸드플래시 설비투자액도 2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323억 9,500만 달러) 대비 30.2% 하락 전망(TrendForce, '22.12월)
  - 한편 D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크론의 과점 구조 하에 투자 유연성 확보, 공급 조절 등으로 수급 균형이 앞당겨짐에 따라 '23.3분기 반등이 기대되나 낸드플래시는 누적된 재고 수준 등으로 '23.4분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국신용평가, '22.12월)

**그림 1-2 |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및 설비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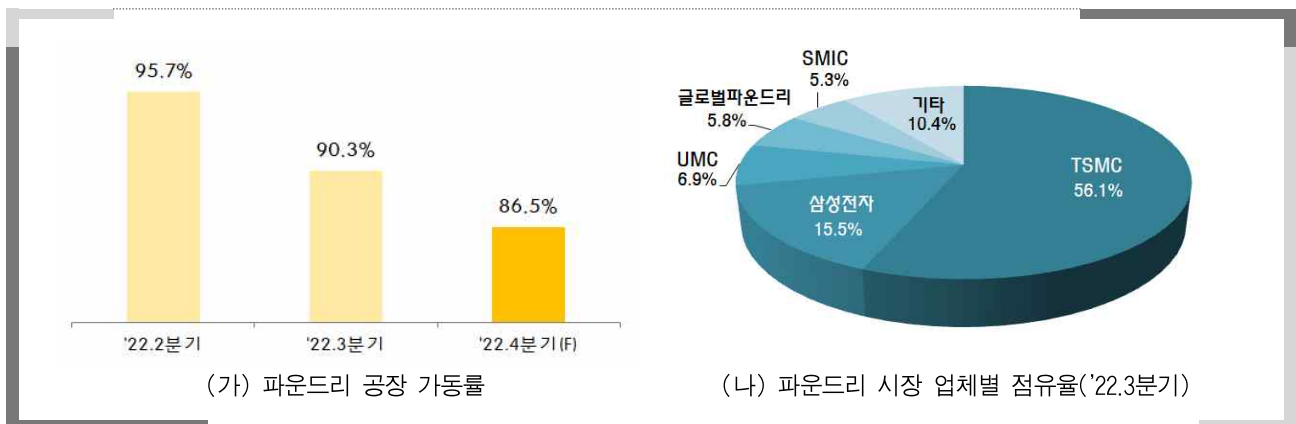
자료 : Dramexchange 재인용, 고정거래가격, 2022.11. / TrendForce, 2022.12.

## □ 메모리 업체들의 행보와 달리 파운드리 업체들은 업황 둔화 전망에도 투자를 진행

- 글로벌 인플레이션, 각국의 긴축정책 등에 따른 수요 약세로 파운드리 가동률 및 매출이 하락
  - 경기 침체, 라우 전쟁, 중국 봉쇄 정책 등에 따른 IT기기 수요 감소가 지속. 이에 따라 선주문 감소, 추가 계약 확보 실패, 주문 취소 등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가동률이 감소
  - 올해 초 파운드리 업체들은 '21년 주문량으로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22.하반기부터 주문량이 줄어들음에 따라 100% 부근을 유지하던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을 '22.3분기 90.3%로 낮추었으며 4분기 86.5%까지 축소할 전망(Gartner, '22.11월)
    - ※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 추이 : ('21.1Q) 95.7% → (3Q) 99.2% → ('22.2Q) 95.7% → (3Q) 90.3% → (4QF) 86.5%
  - '22년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1,382억 달러로 전망되며 '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디지타임스, '22.12월)
  - 또한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1위 TSMC의 7nm 공정 가동률이 50%를 하회하는 등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23.1분기 매출이 10%~15% 감소할 것으로 예측
    - ※ TSMC는 애플 등이 중심인 4nm~5nm 공정 제품 수요는 견조했으나 6nm~7nm 중심 수요가 감소
- 시장 위축 전망에도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경쟁은 심화
  -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세트 제품 수요 감소 및 반도체 재고 증가가 연쇄적으로 발생. 이에 따라 호황기를 유지하던 파운드리 시장도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나 업체들은 향후 수요에 대비한 투자를 진행
  - (TSMC)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120억 달러 규모의 4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24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 또한 '22.12월 2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26년 가동을 목표로 3나노급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2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

- ※ TSMC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으로 미국 기업 대상 영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
-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여 2개 팹으로 구성된 신규 파운드리 공장 착공을 '22.11월 시작했으며 각각 '24년, '25년 가동 예정
- 또한 텍사스주에 1,921억 달러를 투자해 '42년까지 11개(테일러시 9개, 오스틴시 2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예정. 관련하여 미국은 '22.12월 삼성전자가 '22.5월 신청한 테일러시 9개 공장(1,676억 달러 규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승인
- ※ 삼성전자는 원 이어 원 뉴 팹(1년에 팹 1곳 신설)전략으로 고객 주문을 받기 전 생산 시설부터 건설하는 쉘 퍼스트(Shell First) 방식을 통해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향후 폭증할 고객 수요에 미리 대비
- (UMC) 대만 타이난 공장 확장 및 싱가포르 신공장 건설 가속화를 위해 '22.12월 324억 2,000만 대만달러 규모 투자를 승인하는 등 파운드리 성숙 공정 주력 기업들도 생산능력 확대를 진행
- ※ TSMC, 삼성전자는 10nm 미만 미세 공정으로 경쟁하며 UMC, 글로벌파운드리, SMIC는 28nm 공정이 주력

**그림 1-3 | 세계 파운드리 공장 가동을 추이 및 업체별 점유율**



자료 : Gartner, 2022.11. / TrendForce, 2022.12.

## 2) 수출 동향

### □ '22.11월 반도체 수출은 시스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하락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

- (품목별) 시스템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메모리 반도체가 큰 폭 하락함에 따라 '22.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4% 감소한 86.6억 달러를 기록
  - (메모리 반도체 : 38.4억 달러, △49.7%) 소비자용 IT 기기 등 전방 산업 수요 둔화, 가격 하락 등의 복합 작용으로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MCP, 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등이 감소하면서 낙폭이 증가
  - (시스템 반도체 : 42.5억 달러, 8.8%↑) 파운드리·패키징 등을 중심으로 선전하면서 장기간 상승세를 지속.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성장폭이 둔화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이 감소



- 중국(홍콩 포함, 44.2억 달러,  $\Delta 38.4\%$ )은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Delta 50.9\%$ )와 시스템 반도체( $\Delta 5.6\%$ )가 동반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내림세 유지
- 베트남(12.6억 달러,  $\Delta 8.9\%$ )은 시스템 반도체( $15.3\% \uparrow$ )는 증가했으나 메모리MCP·복합부품집적 회로(MCOs) 등 메모리 반도체( $\Delta 32.2\%$ )가 감소하면서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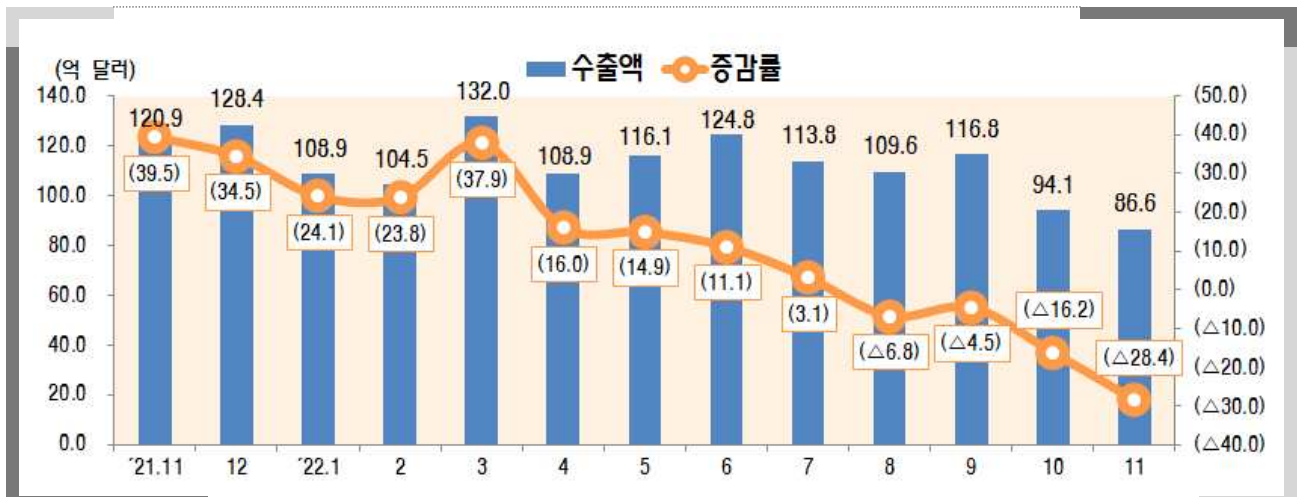
표 1-3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11	12	'22.1	2	3	4	5	6	7	8	9	10	11
반도체	120.9 (39.5)	128.4 (34.5)	108.9 (24.1)	104.5 (23.8)	132.0 (37.9)	108.9 (16.0)	116.1 (14.9)	124.8 (11.1)	113.8 (3.1)	109.6 ( $\Delta 6.8$ )	116.8 ( $\Delta 4.5$ )	94.1 ( $\Delta 16.2$ )	86.6 ( $\Delta 28.4$ )
메모리	76.4 (47.3)	84.1 (40.3)	64.8 (21.9)	63.3 (21.3)	82.0 (34.0)	63.8 (7.7)	72.8 (10.8)	77.9 (3.2)	61.7 ( $\Delta 13.5$ )	57.5 ( $\Delta 24.7$ )	66.2 ( $\Delta 16.7$ )	44.7 ( $\Delta 35.7$ )	38.4 ( $\Delta 49.7$ )
D램	37.1 (56.1)	41.3 (64.6)	32.0 (34.3)	31.8 (40.1)	38.9 (44.3)	32.4 (12.9)	37.1 (27.9)	38.8 (14.9)	32.7 ( $\Delta 7.0$ )	27.9 ( $\Delta 26.0$ )	31.1 ( $\Delta 17.6$ )	20.7 ( $\Delta 41.9$ )	18.2 ( $\Delta 51.0$ )
낸드	6.2 (24.0)	6.4 ( $\Delta 5.8$ )	5.2 (6.8)	6.3 (36.9)	7.5 (68.8)	7.4 (51.0)	8.0 (36.8)	7.9 (32.0)	7.4 (49.3)	6.2 (9.3)	6.7 (2.4)	5.7 ( $\Delta 10.6$ )	5.2 ( $\Delta 16.8$ )
메모리 MCP	30.2 (57.6)	31.3 (31.3)	24.1 (16.4)	21.1 ( $\Delta 1.5$ )	30.5 (19.9)	19.8 ( $\Delta 9.9$ )	24.1 ( $\Delta 11.9$ )	25.1 ( $\Delta 21.9$ )	18.3 ( $\Delta 32.6$ )	20.8 ( $\Delta 26.5$ )	24.7 ( $\Delta 18.7$ )	16.5 ( $\Delta 30.0$ )	13.5 ( $\Delta 55.4$ )
메모리 MCOs	2.8 ( $\Delta 26.9$ )	4.9 (21.9)	3.4 ( $\Delta 6.4$ )	4.0 (20.3)	5.1 (19.1)	4.1 (15.3)	3.5 (3.4)	6.1 (72.5)	3.2 ( $\Delta 20.5$ )	2.5 ( $\Delta 46.6$ )	3.6 ( $\Delta 24.5$ )	1.7 ( $\Delta 56.3$ )	1.5 ( $\Delta 47.3$ )
시스템 반도체	39.0 (31.1)	38.9 (30.1)	38.7 (33.0)	36.1 (33.9)	44.5 (53.5)	40.0 (36.4)	38.3 (26.8)	41.8 (33.3)	46.8 (40.4)	46.6 (31.0)	45.1 (20.2)	43.8 (17.6)	42.5 (8.8)
개별 소자	1.5 ( $\Delta 4.0$ )	1.5 ( $\Delta 1.3$ )	1.4 ( $\Delta 4.0$ )	1.4 (0.2)	1.6 (2.9)	1.5 ( $\Delta 3.6$ )	1.5 (3.7)	1.4 ( $\Delta 5.4$ )	1.3 ( $\Delta 21.6$ )	1.3 ( $\Delta 12.8$ )	1.4 ( $\Delta 8.1$ )	1.3 ( $\Delta 11.2$ )	1.3 ( $\Delta 9.5$ )
광전 소자	2.5 (5.4)	2.5 ( $\Delta 14.7$ )	2.4 ( $\Delta 13.4$ )	2.0 ( $\Delta 23.1$ )	2.0 ( $\Delta 24.7$ )	2.0 ( $\Delta 21.1$ )	1.8 ( $\Delta 27.5$ )	2.1 ( $\Delta 22.6$ )	2.3 ( $\Delta 5.8$ )	2.4 ( $\Delta 7.9$ )	2.5 (2.0)	2.7 (6.3)	2.9 (16.3)

자료 : IITP, KTSPI

그림 1-4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502.5	25.9	39.0	중국	32.6	-35.3	37.6	489.2	8.4	40.2
2	홍콩	265.9	28.2	20.7	베트남	12.6	-8.9	14.6	148.3	17.4	12.2
3	베트남	140.3	21.9	10.9	홍콩	11.6	-45.7	13.4	182.4	-24.4	15.0
4	대만	107.0	67.9	8.3	대만	9.3	-10.7	10.7	115.7	19.7	9.5
5	미국	95.2	18.0	7.4	미국	5.3	-37.3	6.1	86.2	2.2	7.1
6	싱가포르	38.3	48.5	3.0	싱가포르	5.1	34.6	5.9	54.4	61.6	4.5
7	필리핀	38.0	31.0	2.9	필리핀	2.0	-43.0	2.3	35.5	2.7	2.9
8	말레이시아	16.5	22.7	1.3	인도	1.7	41.1	2.0	20.6	77.9	1.7
9	일본	13.9	28.9	1.1	말레이시아	1.7	22.6	2.0	17.7	18.5	1.5
10	인도	12.6	18.0	1.0	일본	0.8	-40.0	0.9	12.6	-0.1	1.0

자료 : IITP, KTSPI

### 3 디스플레이 패널

#### 1) 수출 환경

#### □ 글로벌 패널 시장의 하락 전망 속에 중소형 시장 내 OLED 비중은 점진적 증가 전망

- (시장 전망) '22년 글로벌 패널 시장(34.4억 대, △11.7%)은 전방 시장 불황 등으로 반락 전망(OMDIA, '22.12월)
  - (대형 패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전방 세트 수요 부진, TV용 LCD 패널 단가 하락 등에 따른 패널 업체들의 강도 높은 가동률 조정 등이 발생하면서 '22년 시장(8억 9,423만 대, △8.4%)은 3년 만에 하락 전환할 전망
    - ※ LCD 패널(8.7억 대, △8.6%)은 반락, OLED 패널(2,273만 대, 1.2%↑)은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
  - (중소형 패널)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 IT용 패널 판가 하락 등으로 LCD 패널 수요(17.0억 대, △15.4%)가 큰 폭 하락하고 고성장을 거듭했던 OLED 패널 시장(8.5억 대, △7.0%)마저도 반락 하며 올해 중소형 패널 시장(25.5억 대, △12.8%)은 두 자릿수 감소 전망
  - 다만 차량용·스마트폰 등으로의 OLED 채용이 확대되면서 '22년 중소형 패널 시장 내 OLED 비중은 33.4%로 지속 확대될 전망
    - ※ 중소형 패널 시장 내 OLED 패널 비중 추이 : ('18) 22.3%, ('19) 25.4%, ('20) 27.0%, ('21) 31.3%, ('22E) 33.4%
  - 한편 '23년 애플·소니 등의 XR기기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25년부터 XR기기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XR기기용 패널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XR기기용 패널은 중소형 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요소로 기대(다음 장 참조)
    - ※ XR기기(VR+AR) 시장 전망(만 대, SK증권, '22.12월) : ('20) 500 → ('23) 2,900 → ('24) 4,600 → ('25) 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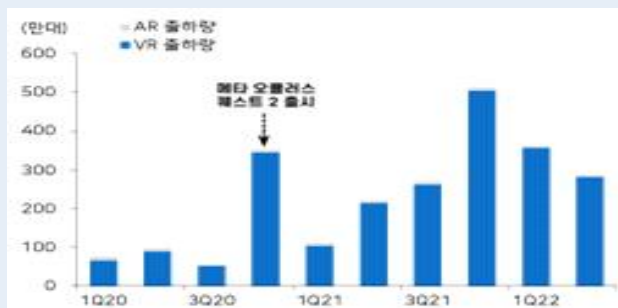
그림 1-5 | 글로벌 대형 및 중소형 패널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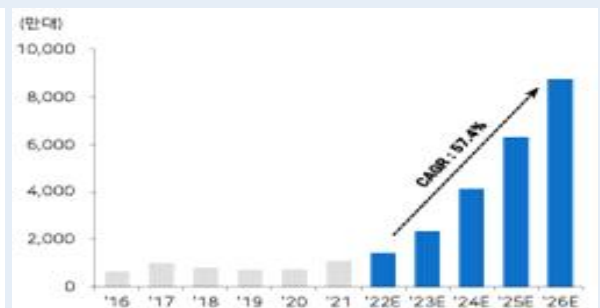
자료 : OMDIA, 2022.12.

- (참고) 메타버스 시장 성장과 함께 글로벌 IT 업체들의 XR기기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중소형 패널 新수요처로 주목
  - '22.10월 메타가 프리미엄 VR기기 '메타 퀘스트 프로'를 출시한 데 이어 소니도 7년 만에 플레이스테이션용 VR기기 'PS VR2'를 '23.2.22일, 549.99달러에 출시할 것이라 발표
  - 게다가 애플도 '23년 하반기 4K 마이크로 OLED 패널(올레도스·OLEDoS<sup>2</sup>)을 탑재한 MR 헤드셋('xrOS')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XR기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
    - ※ '22.6월 귀밍치 TF인터내셔널증권에 따르면 애플은 신제품 MR기기 가격을 2,000달러 이상으로 책정하고 '23년 150만 대가량 출하할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XR기기용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성도 주목받으며 기존 LCD 패널에서 올레도스(OLEDoS), 레도스(LEDoS) 디스플레이로의 교체도 가속화될 전망
    - ※ 실리콘 기판 위에 OLED, LED를 올린 디스플레이를 올레도스(OLEDoS), 레도스(LEDoS)라 칭하며 LCD 패널 대비 해상도·명암비·주사율 등의 측면에서 성능이 우월
-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VR·AR 시장向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해 올레도스 등의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매진
  - (소니) '16년 업계 최초로 올레도스(OLED on Silicon) 개발에 성공하며 VR기기 패널 시장을 선점
  - (LG디스플레이) '22.5월 0.42인치 올레도스를 공개한 데 이어 '22.11월 한층 더 개선된 7,000~8,000니트의 고휘도 올레도스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추후 12,000니트의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 발표
  - (삼성디스플레이) VR·AR 시장 대응을 위해 화소밀도 6600PPI 수준의 레도스 개발, 아산 탕정 A2 마이크로 OLED 초도 라인 구축 등의 투자를 진행하며 '24년부터는 일부 제품을 본격 양산할 예정
    - ※ 한편 업계에서는 애플의 차세대 기기 'xrOS'의 마이크로 OLED 패널 주 공급사는 소니가 가장 유력하며, LG디스플레이는 신제품 헤드셋 외부의 일반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추측

#### 〈VR·AR기기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2022년 상반기 기준 VR·AR 시장 규모



(나) 글로벌 VR·AR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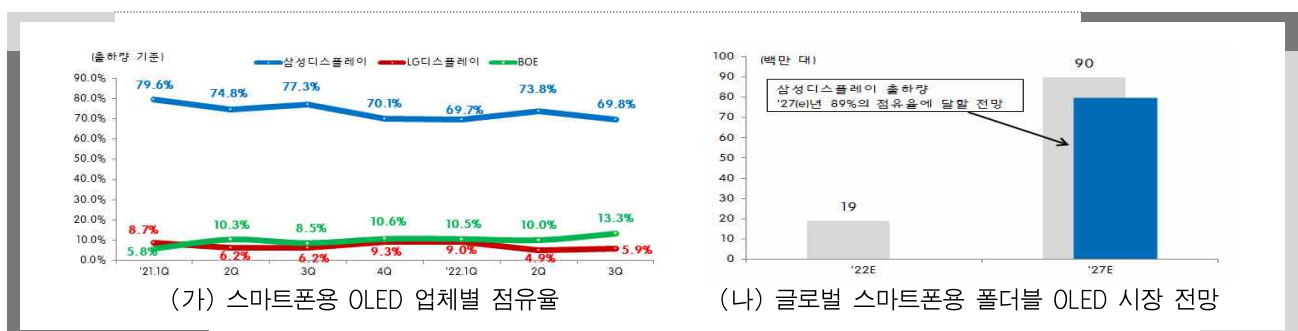
자료 : 메리츠증권, 11.29일 재인용

2) 화소수 3500PPI(Pixel Per Inch) 이상의 마이크로 OLED를 의미. 초고해상도 화면 구현이 가능해 XR기기에 최적인 것으로 평가

## □ 中 디스플레이 굴기 속, 국내 업체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만전

- LCD에 이어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업체는 디스플레이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격차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중국 패널 업체는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샤오미·오프·비보 등), 국가 보조금 등에 힘입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공급해 1세대 리지드(휘어 않는) OLED에 이어 2세대 플렉시블(휘어지는) OLED 패널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며 국내 업체를 위협
    - ※ 현재 삼성전자는 전체 제품군 중 갤럭시 폴드·플립을 제외하고 리지드(보급형)·플렉시블(고급형) OLED를 채택하고 있으며 애플도 저가형 ‘아이폰 SE3(LCD 사용)’를 제외하고 플렉시블 OLED를 탑재
  - 이에 스마트폰용 OLED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세트 업체 수요 등에 힘입어 리지드 OLED 생산을 감산(’22~’27년 연평균 △20.8%)하고 3세대 폴더블 OLED 공급을 확대하며 스마트폰용 OLED 기술 전환을 주도해 중국 업체와의 격차를 확대할 방침
    - ※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갤럭시Z 폴드’, ‘갤럭시Z 플립’向 폴더블 OLED 전량을 수주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전자가 ’25년까지 전체 스마트폰의 50%를 폴더블 폰으로 판매하겠다 발표해,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폴더블 OLED 시장 확장에 집중할 계획(조선일보, 12.9일, 원소스 유비리서치)
  - 다만 LG디스플레이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유일 고객사인 애플에만 플렉시블 OLED를 공급중이며 경쟁 업체와 달리 폴더블 OLED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 중국의 거센 추격에 타격이 우려
- 한편 LG디스플레이가 ’22.12.31일 TV용 LCD 패널 국내 생산을 종료할 것이라 밝혀 주목
  - ’22.6월 LCD 생산을 완전 종료하며 빠르게 OLED 사업으로 전환한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LG 디스플레이도 지속되는 수익성 악화, LCD TV용 패널 경쟁 심화 등으로 6개월가량 일정을 앞당겨 12.31일 파주 P7 라인의 LCD 생산을 종료할 것이라 발표(12.23일)
    - ※ LG디스플레이는 점진적인 LCD 패널 감산, IT용 LCD 제품 전환 등으로 최종 ’23.2분기 LCD 국내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종료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분석. ’23년부터는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만 TV용 LCD 패널을 생산할 방침

그림 1-6 | 스마트폰용 OLED 업체별 점유율 추이 및 글로벌 스마트폰용 폴더블 OLED 시장 전망



자료 : OMDIA, 2022.12. / 조선일보, 2022.12.9. (원소스 유비리서치)

## 2) 수출 동향

### □ '22.11월 패널 수출은 6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 수출액은 20억 달러대를 유지

- **(품목별)** LCD·부분품의 수출 부진과 OLED 패널 역성장 전환 등으로 전체 패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3% 하락한 20.1억 달러 기록. 다만 2개월 연속 20억 달러대를 유지
  - (LCD 패널 : 3.6억 달러, △33.5%) 국내 업체의 TV용 LCD 생산 종료 및 감소, LCD 패널 가격 하락, 전방 수요 약화 등으로 내림세가 지속되며 수출 비중도 축소
    - ※ 전체 패널 중 LCD 패널 비중 추이(%) : ('22.8월) 25.9 → (9월) 17.8 → (10월) 17.6 → (11월) 18.1
  - (OLED 패널 : 14.1억 달러, △7.6%) 중국 봉쇄 조치 여파 등으로 프리미엄 신제품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OLED 수출은 소폭 하락. 다만 폴더블·차량용 등의 수요 견조세로 2개월 연속 14억 달러대를 유지하며 수출 비중도 70%대 지속
    - ※ 전체 패널 중 OLED 패널 비중 추이(%) : ('22.8월) 60.1 → (9월) 68.1 → (10월) 70.8 → (11월) 70.4
  - (부분품 : 2.3억 달러, △34.2%) LCD 생산 중단 등으로 편광판(1.4억 달러, △47.6%)·BLU(0.03억 달러, △65.8%) 등의 수출이 하락하며 6개월 연속 내림세
- **(지역별)**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중국(홍콩 포함) 등은 부진하나 헝가리 등은 호실적 지속
  - 베트남(12.1억 달러, △14.1%)은 LCD 패널(0.3억 달러, △67.5%) 수출의 두 자릿수 하락, OLED 패널 반락(11.6억 달러, △9.1%)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
  - 중국(홍콩 포함, 6.8억 달러, △25.7%)은 LCD(2.9억 달러, △29.9%), OLED(2.2억 달러, △11.6%), 부분품(1.7억 달러, △32.4%) 등 전방위적인 수출 감소로 7개월간 하락 지속
  - 헝가리(0.3억 달러, 342.3%↑)는 OLED(0.2억 달러) 고성장 등을 중심으로 수출 상위국 3위에 랭크

**표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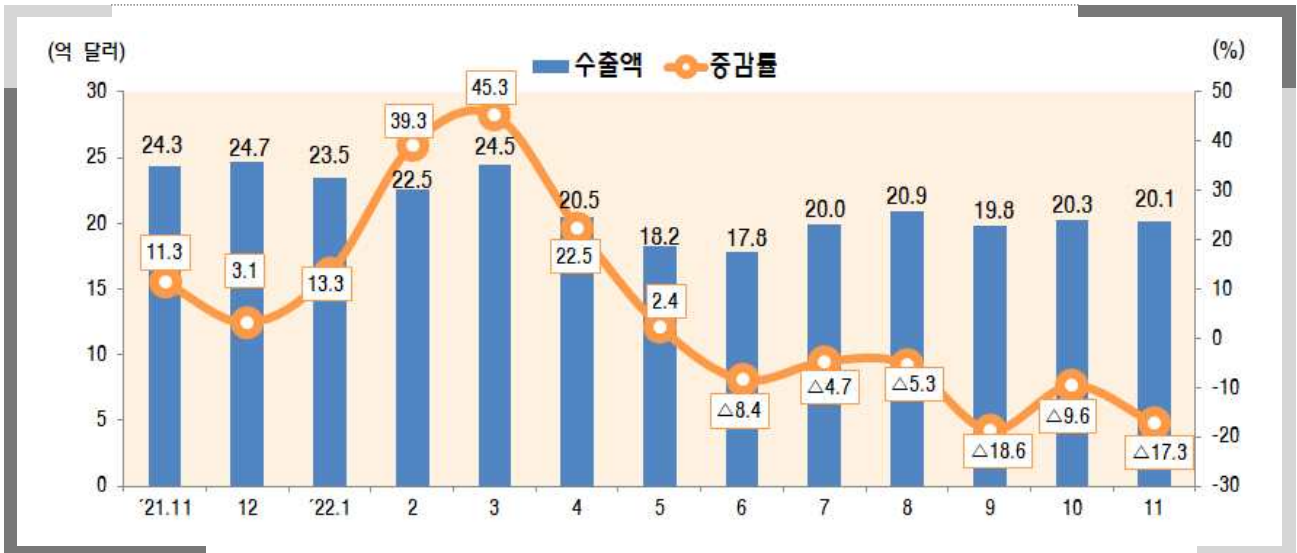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11	12	'22.1	2	3	4	5	6	7	8	9	10	11
패널	24.3 (11.3)	24.7 (3.1)	23.5 (13.3)	22.5 (39.3)	24.5 (45.3)	20.5 (22.5)	18.2 (2.4)	17.8 (△8.4)	20.0 (△4.7)	20.9 (△5.3)	19.8 (△18.6)	20.3 (△9.6)	20.1 (△17.3)
LCD	5.5 (2.3)	5.6 (△8.3)	5.4 (1.8)	5.2 (15.8)	6.1 (24.2)	5.2 (5.3)	4.9 (3.0)	4.3 (△9.0)	4.8 (△8.7)	5.4 (12.5)	3.5 (△27.3)	3.6 (△30.4)	3.6 (△33.5)
OLED	15.3 (14.0)	15.3 (6.2)	14.0 (14.4)	13.1 (56.3)	14.2 (69.0)	11.7 (38.8)	9.9 (2.1)	10.9 (△2.4)	12.5 (2.7)	12.6 (△10.0)	13.5 (△16.5)	14.3 (2.9)	14.1 (△7.6)
부분품	3.5 (15.7)	3.7 (10.6)	4.1 (28.0)	4.2 (27.9)	4.2 (18.1)	3.6 (6.7)	3.4 (2.4)	2.6 (△26.3)	2.7 (△24.2)	2.9 (△11.6)	2.8 (△16.3)	2.4 (△29.8)	2.3 (△34.2)

자료 : IITP, KTSPI



그림 1-7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5.3	23.8	50.8	베트남	12.1	-14.1	60.1	120.8	8.2	52.9
2	중국	102.1	15.4	41.4	중국	6.5	-22.0	32.3	83.5	-10.2	36.6
3	홍콩	5.1	31.9	2.1	홍콩	0.3	-65.2	1.4	3.8	-15.4	1.6
4	멕시코	2.6	26.7	1.0	헝가리	0.3	342.3	1.3	2.6	233.7	1.1
5	미국	2.2	0.6	0.9	인도	0.1	68.6	0.7	2.4	142.0	1.1
6	인도	1.1	50.4	0.5	멕시코	0.1	-24.0	0.7	6.1	169.3	2.7
7	일본	1.0	-22.7	0.4	일본	0.1	11.2	0.6	1.5	65.1	0.7
8	헝가리	0.8	42.1	0.3	미국	0.1	-24.7	0.6	1.6	-25.2	0.7
9	대만	0.6	-7.8	0.3	말레이시아	0.1	299.0	0.3	0.6	137.1	0.3
10	폴란드	0.6	-15.6	0.2	슬로바키아	0.0	18.3	0.2	0.8	177.6	0.3

자료 : IITP, KTSPI

## 4 휴대폰

### 1) 수출 환경

#### □ '22.4분기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전역에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 예상

- **(전체)** 전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22.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줄어든 3억 1,390만 대가 출하되며 '14년 이후 4분기 기준 최저치 기록 예상(SA, '22.12월)
  - 라-우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지정학적 문제와 더불어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 불황 등에 따른 소비력 약화 등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하락세가 확대될 전망
    - ※ SA는 '22.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을 '22.9월 3억 4,590만 대(△5.9%)로 예상했으나 12월 3억 1,390만 대(△14.0%)로 하향 조정(3,200만 대 감소)
  - '21.3분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위축은 '23.3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하면서 완만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측
    -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 ('21.2Q) 10.9%↑ → (3Q) △10.8% → ('22.4QF) △14.0% → ('23.1QF) △11.2% → (2QF) △8.5% → (3QF) △3.7% → (4QF) 2.1%↑
- **(지역별)** 대부분 지역에서 스마트폰 출하 정체 및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라-우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유럽은 급감할 전망(SA, '22.12월)
  - 동유럽(△30.7%)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주요 지역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예상. 한편 에너지 부족, 경기 침체 등으로 서유럽(△15.2%)도 하락할 전망
  - 아시아/태평양(△15.5%)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의 영향으로, 북미(△12.1%)는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예상. 또한 중동/아프리카(△8.4%)도 식료품 공급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약화 등으로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

그림 1-8 | 전체 및 지역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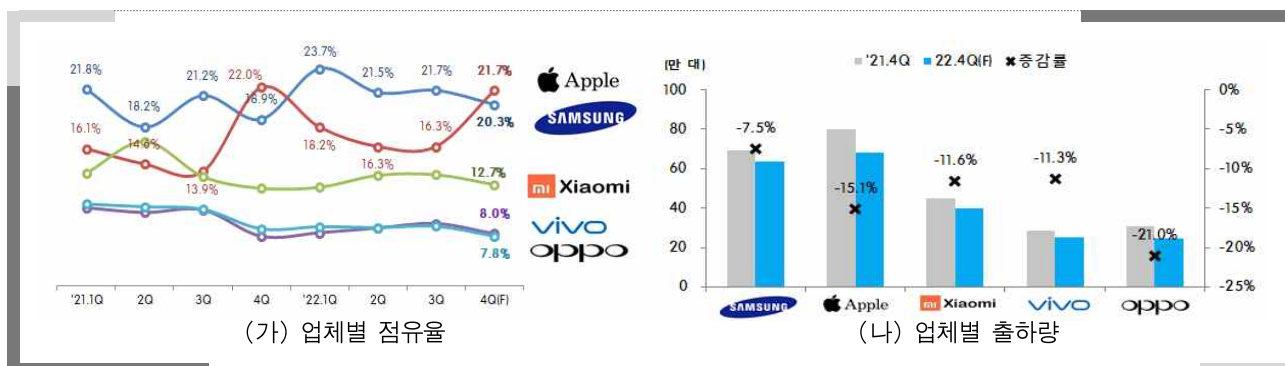


자료 : SA, 2022.12.

## □ 삼성전자가 '22년 3분기 연속 스마트폰 시장 선두를 유지했으나 4분기 1위 유지는 불투명

- **(3분기)** 삼성전자는 애플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글로벌 출하량 1위는 유지
  - 지정학적 요인,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비 시장 악화 등으로 '22.3분기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6,440만 대( $\Delta 7.1\%$ )를 기록하며 반락(SA, '22.12월)
    - ※ 삼성전자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 증감률 추이: ('22.1Q)  $\Delta 2.7\% \rightarrow$  (2Q)  $9.5\% \uparrow \rightarrow$  (3Q)  $\Delta 7.1\%$
  - 반면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등으로 4,850만 대( $6.4\% \uparrow$ ) 출하량을 기록하며 '22.1분기 상승 전환 후 상위 5위권 업체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성장
    - ※ 애플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 증감률 추이: ('21.4Q)  $\Delta 2.0\% \rightarrow$  ('22.1Q)  $0.5\% \uparrow \rightarrow$  (2Q)  $3.3\% \uparrow \rightarrow$  (3Q)  $6.4\% \uparrow$
  - 삼성전자의 위축 및 애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2.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1.7%를 차지하며 3분기 연속 1위를 수성했으며 뒤이어 애플(16.3%)이 2위에 랭크
    - ※ 삼성전자는 '21.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앞서는 점유율 1위 탈환 후 3분기 연속 최다 출하를 기록. 이후 점유율 감소로 4분기 2위에 랭크했으나 '22.1분기 재역전 후 선두를 유지
- **(4분기 전망)**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등으로 애플은 '22.4분기 삼성전자를 역전하고 선두에 오를 전망
  - 화웨이향 스마트폰 수요 흡수,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효과 반영 등에 따라 애플은 판매 호조를 이루며 '22.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6,800만 대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추월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애플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인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 사태로 생산 차질을 겪었으나 수요가 높은 아이폰14 프로·프로맥스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의 조치로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봉쇄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애플의 '22.4분기 글로벌 출하량은 전년 동기(8,010만 대) 대비 15.1% 감소할 전망이나 정저우 봉쇄 해제로 생산이 재개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는 재고 압박에 따른 스마트폰 생산량 조절 등으로 '22.4분기 출하량(6,380만 대,  $\Delta 7.5\%$ )이 감소하면서 점유율 20.3%로 애플에 밀려 2위를 기록할 전망
    - ※ 삼성전자는 '22.12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박닌성의 공장 가동을 2주 이상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그림 1-9 | 업체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및 출하량 추이



자료 : SA,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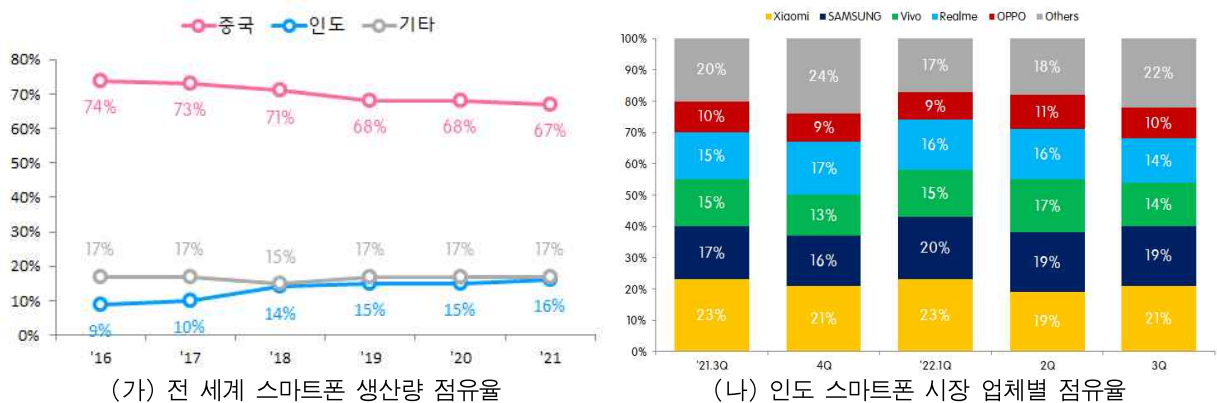
## □ 유리한 제조환경, 시장 성장성 등으로 주요 업체들이 인도 내 생산 및 판매 확대를 계획

-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할 전망. 이에 따라 인도가 유망한 생산지로 부상
  - 미·중 패권 경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중국 내 스마트폰 공급망이 불안정. 이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중국 내 생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로 생산기지 이전을 계획
  - '14년 인도 내 휴대폰 제조 공장 수는 2개에 불과했으나 인도 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 풍부한 인적 자원 등의 우호적 환경으로 '20년 제조 공장 수는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급증
  - 애플이 향후 인도 내 아이폰 생산량을 40%~45%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인도에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추세가 확대될 전망
    - ※ 애플 최대 위탁생산업체 폭스콘의 인도 남부 공장에 현재 약 1만 7,000명이 근무 중이며 '24년까지 직원을 7만 명으로 확충할 계획. 또한 인도 생산능력 확장에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다만 첨단 기술 숙련공 부족, 열악한 생산 기반 인프라 등으로 인도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량은 16%에 그쳐 중국과 큰 격차를 유지함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중국 생산 탈피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 유망한 시장 환경 등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인도 내 스마트폰 판매량을 확대
  -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기록. 또한 '22년 6%~9%의 GDP 성장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상대적으로 경제 환경이 양호하여 유망한 시장으로 분류(메리츠증권, '22.11월)
    - ※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9.4월) 6%대 → ('19.6월~'20.2월) 5%대 → ('20.3월~'22.6월) 4%대로 하락 흐름을 보였으나 ('22.8월) 5.4% → (9월) 5.9% → (12월) 6.25%로 상승
  - 또한 인도 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약 40%(약 5억 4,000만 명)에 불과하여 추가 성장 여력이 높은 시장이며 '22년 전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으로 유망한 시장 환경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
    - ※ '22.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업체별 출하량 점유율(카운터포인트리서치, '22.12월) : (샤오미) 21%, (삼성) 19%, (비보) 14%, (리얼미) 14%, (오포) 10%, (기타) 22%
  - 한편 국경 분쟁에 따른 반중 정서 확대 등으로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퇴출을 가속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애플 등 중국 외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예상
  - 또한 인도 내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로 삼성전자가 '23.2분기 23%~24%의 점유율로 샤오미(19%~20%)를 추월할 전망(테크아크, '22.12월)
    - ※ 인도 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 5G 서비스 시작 등으로 주력 스마트폰 가격이 2만 루피 이상으로 상승. 이에 따라 저가 제품 위주인 중국 업체보다 중저가, 고가 제품 위주의 삼성전자, 애플 등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

**표 1-7 | 인도 시장 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동향**

업 체	내 용
 SAMSUNG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의 쇼핑 시즌인 디왈리 축제 기간('22.9월~10월) 동안 약 17억 달러의 스마트폰을 판매 ※디왈리 축제는 1년 실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인도 소비재 판매량의 35%가 발생하므로 축제 시즌 실적은 인도에서의 대표 수요 지표</li> <li>•'22.10월 인도의 5G 도입 시작 등에 따라 피쳐폰 생산을 중단하고 중저가 갤럭시M·A부터 플래그십 S 시리즈, 폴더블 Z시리즈까지 인도를 스마트폰 시장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 ※삼성전자 인도법인 홈페이지에 피쳐폰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일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서만 피쳐폰을 판매. 인도 현지에서 '22.12월 생산하는 피쳐폰 물량을 마지막으로 전 생산라인을 스마트폰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li> <li>•'22.12.16일 인도 시장에 15만 원 이하의 초저가 스마트폰 갤럭시M04를 세계 최초로 출시. 또한 갤럭시M14 5G, 갤럭시F14 5G, A14 5G 등 보급형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li> </ul>
 Ap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인도 내 약 160개의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샵을 운영 중인 애플은 인도 타타그룹 계열의 가전 유통업체 인피니티리테일과 공인 대리점 계약을 맺어 대형 쇼핑몰, 시내 중심가 등을 위주로 애플 공식 리셀러샵 최대 100곳을 추가 오픈할 계획 ※오픈 예정인 애플 공식 리셀러샵의 크기는 약 46㎡~56㎡로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샵(약 93㎡ 이상) 보다 다소 작은 규모</li> </ul>
 Xiao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12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13, 샤오미13 프로'를 출시해 인도 등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할 계획</li> <li>•서브 브랜드 레드미(Redmi)의 중저가 스마트폰 '레드미노트 12 프로' 시리즈를 '23.1.5일 인도에 출시할 예정 ※'14년 레드미노트 시리즈가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8년 만에 7,200만 대를 돌파</li> <li>•한편 인도는 '22.1월 샤오미 인도 법인의 세금 회피를 이유로 수입 관세 65억 3,000만 루피를 부과했으며 '22.4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샤오미 인도 법인 계좌에서 555억 루피를 압수</li> </ul>
 OP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9월 보급형 스마트폰 A시리즈 'A17'을 인도 시장에 출시 후 '22.10월 'A17'의 일부 사양을 낮춘 'A17K'도 공개</li> <li>•한편 인도 정부는 '22.7월 오폭 인도 법인에 439억 루피 규모의 관세 회피 혐의로 동일한 금액의 추징금을 부과</li> </ul>
 Vi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8월 'V25 프로', 9월 'Y16', 11월 'Y02'를 출시. 또한 '22.12월 'S16 프로'를 출시할 예정으로 인도 시장 내 지속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li> <li>•한편 인도는 '22.7월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한 자금 세탁 혐의로 46억 5,000만 루피가 예치되어 있는 비보의 119개 계좌를 모두 동결했으며 12월에는 스마트폰 모델, 가격 등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비보가 생산한 2만 7,000대(약 1,500만 달러) 스마트폰 수출을 중단</li> </ul>
 Real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9월 보급형 스마트폰 'C33' 및 약 10만 원 대의 초저가 스마트폰 'Narzo 50i Prime' 출시했으며 '22.12월 최신 중급 스마트폰 '리얼미 10 프로 및 프로 플러스'의 인도 판매를 시작</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그림 1-10 |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2.12.

## 2) 수출 동향

### □ 부분품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완제품의 감소폭 확대로 '22.11월 휴대폰 수출은 반락

- **(품목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向 부품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완제품 수요 부진으로 13.8억 달러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22.10월 13.0%↑ → 11월 △6.2%)
  - (휴대폰 완제품 : 2.8억 달러, △34.5%) 국내 기업의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및 폴더블폰의 호조세 지속과 함께 유럽 시장 중심의 판매는 견조했으나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은 2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휴대폰 부분품 : 11.0억 달러, 5.5%↑)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유지에 따른 카메라 모듈·3D 센싱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로 17개월 연속 오름세 기록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8.6억 달러, 27.9%↑), 베트남(1.3억 달러, △50.0%), 인도(0.05억 달러, △90.5%)
- **(지역별)** 미국·베트남 등은 감소세를 유지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EU 등은 성장세를 지속
  - 중국(홍콩 포함, 8.6억 달러, 22.2%↑)은 애플 등 경쟁 업체의 판매 호조 등으로 완제품(△86.2%)이 감소했으나 카메라 모듈·커버(프레임, 힌지 등) 등 부분품(27.9%↑)이 선전하면서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EU(1.8억 달러, 19.5%↑)는 국내 기업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며 완제품(26.1%↑) 수출이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베트남(1.3억 달러, △49.9%)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생산 라인 일부 국내 이전 등에 따른 생산 축소 등으로 eMMC·RFIC·PCB·카메라 모듈 등 관련 부분품(△50.0%) 및 완제품(△40.7%)이 동반 하락하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 미국(0.6억 달러, △58.2%)은 부분품(65.9%↑) 증가에도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완제품(△77.6%)이 부진하면서 하락 유지

**표 1-8 | 휴대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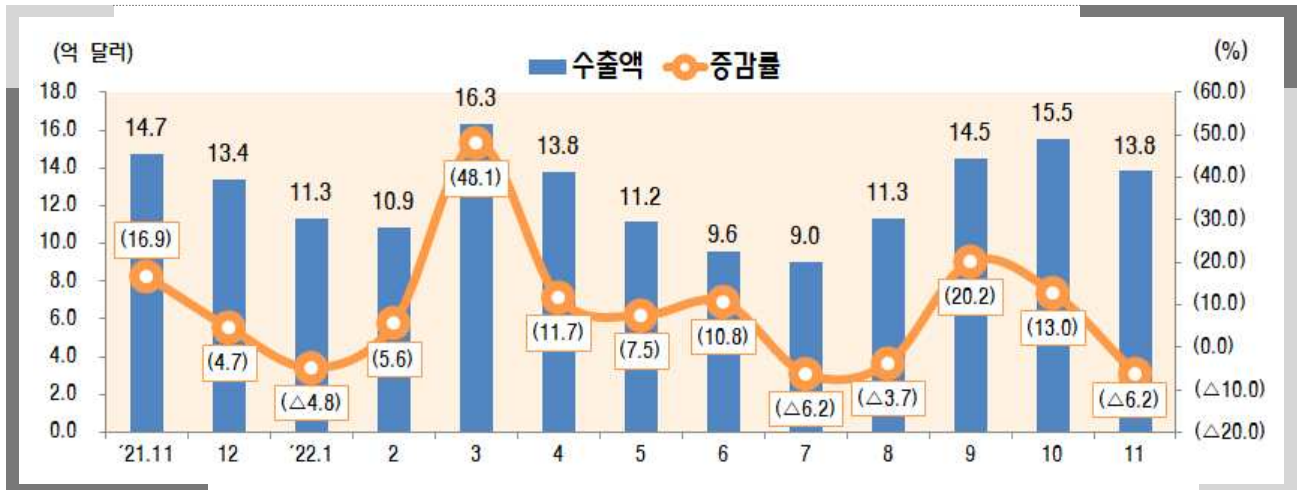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11	12	'22.1	2	3	4	5	6	7	8	9	10	11
휴대 단말기	14.7 (16.9)	13.4 (4.7)	11.3 (△4.8)	10.9 (5.6)	16.3 (48.1)	13.8 (11.7)	11.2 (7.5)	9.6 (10.8)	9.0 (△6.2)	11.3 (△3.7)	14.5 (20.2)	15.5 (13.0)	13.8 (△6.2)
완제품	4.3 (6.4)	3.7 (18.4)	1.3 (△67.2)	2.7 (△37.0)	7.7 (75.2)	5.7 (△0.6)	4.2 (2.0)	4.6 (18.3)	3.0 (△22.2)	2.5 (△34.9)	4.1 (23.5)	2.9 (△28.8)	2.8 (△34.5)
부분품	10.4 (21.8)	9.7 (0.2)	10.1 (24.5)	8.1 (36.5)	8.7 (30.3)	8.1 (22.2)	6.9 (11.1)	5.0 (4.6)	6.0 (4.6)	8.8 (11.9)	10.4 (18.9)	12.7 (30.2)	11.0 (5.5)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9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49.5	70.2	35.4	중국	8.5	28.5	61.7	67.5	56.2	49.2
2	베트남	29.4	-7.9	21.0	베트남	1.3	-49.9	9.3	17.3	-35.7	12.6
3	미국	24.5	-2.0	17.5	미국	0.6	-58.2	4.1	10.2	-55.7	7.4
4	영국	5.3	36.6	3.8	오스트리아	0.6	96.6	4.0	5.1	208.8	3.7
5	독일	4.8	76.4	3.4	캐나다	0.4	434.5	2.9	2.7	102.9	2.0
6	홍콩	3.8	0.1	2.7	필리핀	0.4	1062.9	2.6	1.2	435.6	0.9
7	인도	3.3	192.3	2.4	영국	0.3	-43.2	2.2	5.2	4.4	3.8
8	일본	2.2	9.0	1.6	독일	0.3	-42.8	2.1	5.7	24.9	4.1
9	프랑스	2.0	149.6	1.4	네덜란드	0.2	39.2	1.5	2.7	123.9	2.0
10	오스트리아	1.9	467.0	1.4	이탈리아	0.2	751.9	1.4	1.7	172.9	1.2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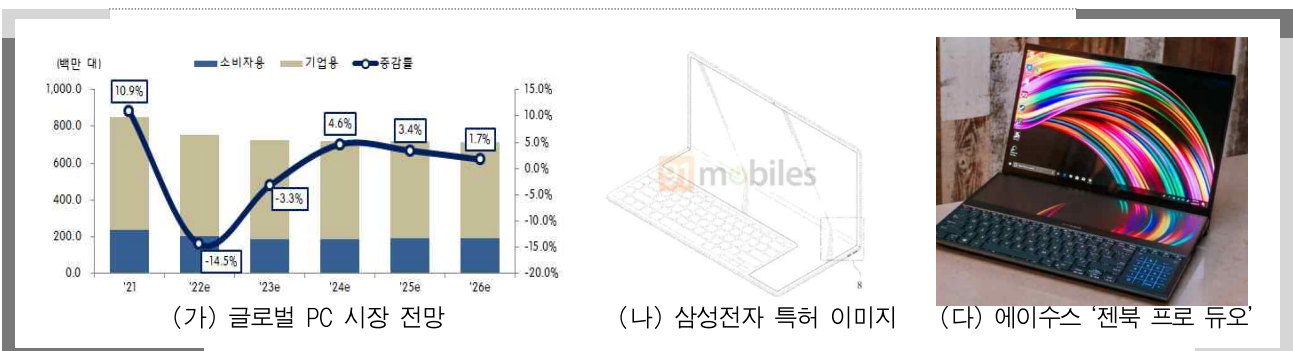
##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 수출 환경

#### □ 글로벌 PC 시장,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으로 '23년에도 수요 침체가 지속될 전망

- (시장 전망) '22년 PC 시장(2억 9,216만 대, △14.5%)은 소비자 수요 약화 등으로 반락 전망
  - 올해 PC 시장은 중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 여파와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고금리·고물가 현상 지속 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며 3억 대를 하회할 것으로 관측
  - 특히 소비자용(1억 932만 대, △16.0%)은 데스크톱(1,989만 대, △16.2%)·노트북(8,942만 대, △16.0%) 등의 수요 급감으로 기업용(1억 8,284만 대, △13.6%)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
  - '23년 PC 시장(2억 8,248만 대, △3.3%)도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용(1억 440만 대, △4.5%)·기업용(1억 7,808만 대, △2.6%) 수요 약세 등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
- 올해 ASUS가 합류한 폴더블 노트북 시장에 향후 주요 업체들의 잇단 참여가 기대
  - (ASUS) '22.9월 폴더블 노트북('젠북 17 폴드')을 출시하며 폴더블 노트북 시장 진영에 합류한 동사는 코로나19 엔데믹 등에 따른 노트북 수요 감소에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시장에 활력을 부여
  - (삼성전자) 17.3인치 폴더블 노트북 '갤럭시북 폴드 17'을 개발 중인 가운데 '20년 미국 특허청 (USPTO)에 출원했던 폴더블 노트북 특허 이미지가 공개(11.22일)되면서 출시 기대감이 고조
    - ※ 해당 기기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키보드 우측에 보조 디스플레이를 추가 탑재. 보조 디스플레이는 가상 트랙패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22.7월 ASUS가 출시한 '젠북 프로 듀오(키보드 위와 우측에 스크린 패드를 추가 탑재)'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
  - (애플) 20인치대 폴더블 맥북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하였으나 출시는 다소 늦은 '27년으로 예상
    - ※ 한편 애플은 中 제로코로나 사태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낮추고자 '23.5월부터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맥북을 생산할 방침

그림 1-12 |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제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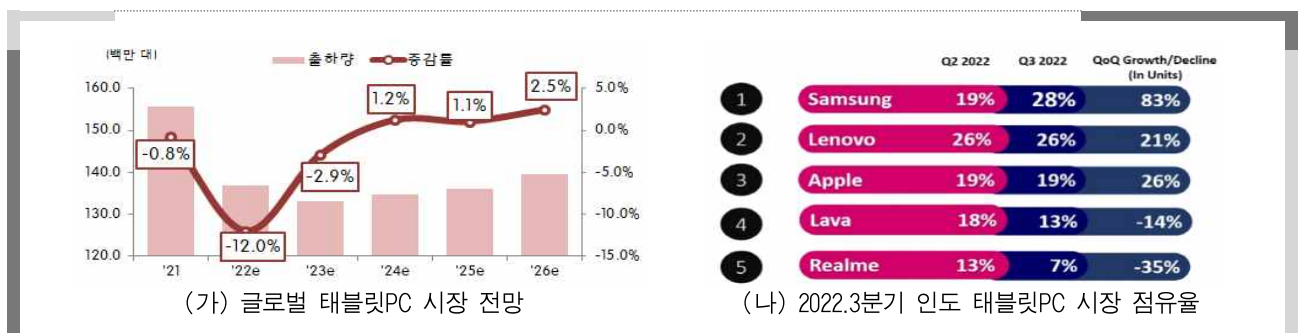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2.9. / 전자신문, 2022.11.24.(원소스 91모바일) / 언론 자료 인용

## □ (태블릿PC) '22년 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하락 폭은 전년 대비 11.2%p 확대 전망

- 라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서 2년 연속 하락 기조
  - (글로벌) 올해 태블릿PC 시장(1억 3,694만 대, △12.0%)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높은 재고 수준, 소비자 구매력 약화, 기저효과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두 자릿수 하락 전망
    - ※ '22년 소비자용(1억 475만 대, △13.1%) 태블릿PC는 기업용(3,219만 대, △8.4%) 제품 대비 큰 폭 하락
  - '23년(1억 3,296만 대, △2.9%)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태블릿PC 시장도 내림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출하량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
  - (인도) '22.3분기 인도 태블릿PC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Lenovo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눈길
  - 삼성전자는 '22.2분기 19%의 점유율로 인도 태블릿 시장 2위를 기록하였으나 '22.3분기 10.5인치 '갤럭시탭 A8('22.1월 출시)' 등을 중심으로 보급형 제품 판매 호조가 지속되면서 2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로 부상
  - 반면 '22.2분기 1위를 차지했던 레노버는 '레노버탭 M8'의 건조한 판매에도 불구하고 '22.3분기 삼성전자에 밀려 2위로 하락. 애플은 '아이패드 9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3위를 차지
- 애플은 아이폰·맥북에 이어 아이패드도 중국→인도로 생산 이동을 검토하며 탈중국 가속
  - (애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봉쇄조치, 미중 갈등 등으로 아이패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생산 물량 일부를 중국→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
    - ※ (참고) 애플은 부분품 공급 부족 등으로 '22.9월 '아이폰14' 생산을 중국이 아닌 인도로 전환하여 생산을 시작
  -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공급 구도를 중국 이외의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여 공급 차질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생산 안정화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다만 인도는 아직까지 중국만큼 숙련된 제조업 인력이 부족하고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따른 긴장 고조 등이 성장의 한계로 존재해 애플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

그림 1-13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전망 및 2022.3분기 인도 태블릿PC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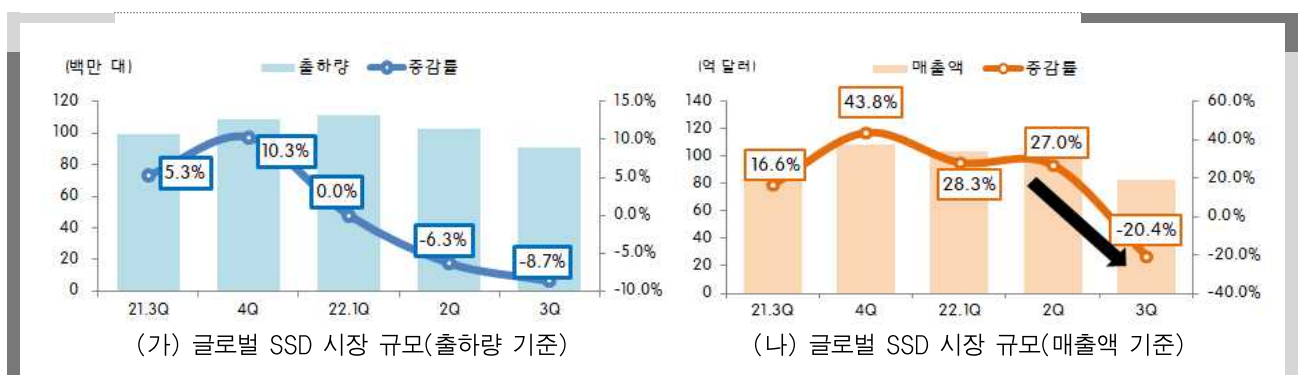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2.9. / CMR, 2022.11.

## □ (SSD) 올 3분기 SSD 시장은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기업용 수요 감소 등으로 역성장

- (시장 규모) '22.3분기 매출액이 5분기 만에 반락하며 100억 달러대를 하회하는 실적 기록
  - 올 3분기 글로벌 SSD 시장은 거시 경제 우려 확대, 지정학적 이슈 발생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출하량(9,083만 대,  $\Delta 8.7\%$ ), 매출액(82.8억 달러,  $\Delta 20.4\%$ ) 양 부분의 실적 지표가 급격히 악화
  - 소비자용 시장은 전방 PC·노트북 등의 수요가 후퇴하면서 출하량(7,442만 대,  $\Delta 9.1\%$ ), 매출액(35.2억 달러,  $\Delta 21.2\%$ )이 모두 감소하며 하락세가 지속
  - 기업용 시장은 IT 업체들의 투자 위축, 데이터 센터 고객 수요 감소 및 재고 조정 등으로 매출액(46.6억 달러,  $\Delta 20.1\%$ )이 크게 감소하며 하락 전환
- (경쟁 현황 및 업체 동향) '22.3분기 마이크론을 제외한 주요 상위 업체의 매출액은 큰 폭 하락
  - 삼성전자(27.2억 달러,  $\Delta 25.7\%$ )는 급격한 수요 경색 등으로 반락하며 30억 달러대를 하회하였으나 여전히 30%를 넘어서는 압도적 점유율(32.9%)을 고수하며 1위를 수성
  - 키옥시아(7.5억 달러,  $\Delta 12.4\%$ )는 '22년 초에 발생한 오염 사고로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며 9.1% 점유율로 전 분기 대비 4단계 상승한 2위에 랭크
    - ※ 솔리다임(7.5억 달러)은 전 분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키옥시아와 함께 공동 2위 기록
  - 이어 SK하이닉스(7.2억 달러,  $\Delta 20.4\%$ )는 8.7%의 점유율로 4위, WD(6.6억 달러,  $\Delta 36.2\%$ )는 상위 업체 중 가장 크게 하락하며 5위로 추락
  - 마이크론(6.2억 달러, 5.2% $\uparrow$ )은 타 경쟁 업체와 달리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전 분기 대비 한 단계 하락한 6위 기록
  - 한편 마이크론은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탑재한 소비자용 SSD '마이크론 2550 NVMe(232단 낸드)'를 출시(12.12일)해 주목. 동 제품은 업계 최초로 232단 낸드의 6면 TLC 방식을 채용하였으며 순차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는 각각 5GB/s, 4GB/s로 전작 대비 43%, 33% 개선

그림 1-14 | 글로벌 SSD 시장 규모(출하량 및 매출액 기준)



자료 : IDC, 2022.11.



## 2) 수출 동향

## □ '22.11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2% 감소한 9.7억 달러 형성

- (품목별) SSD 등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하락하며 10억 달러대를 하회
  - (컴퓨터 : 0.8억 달러, △62.9%) 중대형 컴퓨터(0.2억 달러, 5.1%↑) 수출은 소폭 성장했으나 노트북(0.1억 달러, △0.6%), 부분품(0.4억 달러, △77.1%) 등의 내림세로 11개월 연속 하락
  - (주변기기 : 8.9억 달러, △42.7%) 모니터 수출(1.1억 달러, 41.7%↑)은 꾸준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프린터 수출(0.3억 달러, △4.5%)의 반락, SSD 급감(6.7억 달러, △51.3%) 등으로 내림세
- (지역별) 일본·베트남 등의 수출은 성장한 반면 미국·중국(홍콩 포함) 등은 하락 지속
  - 미국(3.3억 달러, △42.6%)은 컴퓨터(0.1억 달러, △44.8%)·모니터(0.3억 달러, △15.7%) 등의 부진과 더불어 보조기억장치 수출(2.8억 달러, △43.9%) 등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5개월 연속 하락
  - 중국(홍콩 포함, 2.9억 달러, △53.2%)은 컴퓨터(0.3억 달러, △83.7%), 보조기억장치(2.3억 달러, △46.5%) 등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2개월 연속 3억 달러대를 하회
  - 일본(0.4억 달러, 30.4%↑)은 SSD 등의 수출(0.1억 달러, △61.5%)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저장매체(0.2억 달러, 304.0%↑) 수출 반등 등으로 성장 전환

표 1-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11	12	'22.1	2	3	4	5	6	7	8	9	10	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8 (70.8)	16.6 (43.5)	15.3 (54.3)	15.8 (47.8)	17.9 (36.9)	17.6 (57.7)	17.7 (32.8)	16.9 (13.4)	12.1 (△21.9)	12.6 (△25.5)	15.4 (△20.2)	10.3 (△30.9)	9.7 (△45.2)
컴퓨터	2.2 (10.6)	2.4 (12.8)	1.0 (△40.0)	0.8 (△49.5)	0.7 (△61.4)	0.9 (△44.8)	0.9 (△53.1)	0.9 (△51.5)	0.9 (△58.0)	0.7 (△60.5)	0.8 (△60.1)	0.7 (△66.1)	0.8 (△62.9)
부품	1.8 (8.0)	1.8 (9.3)	0.6 (△59.4)	0.4 (△69.0)	0.4 (△74.8)	0.5 (△62.6)	0.5 (△68.4)	0.5 (△66.8)	0.5 (△71.2)	0.4 (△75.7)	0.4 (△76.7)	0.4 (△77.3)	0.4 (△77.1)
주변기기	15.6 (85.0)	14.2 (50.4)	14.4 (72.7)	15.0 (63.9)	17.2 (52.8)	16.7 (75.4)	16.8 (47.5)	16.0 (22.8)	11.2 (△16.3)	11.9 (△21.3)	14.6 (△15.6)	9.6 (△25.2)	8.9 (△42.7)
보조기억장치	13.9 (102.5)	12.3 (54.3)	12.1 (71.1)	13.2 (69.2)	14.2 (54.9)	14.4 (91.2)	14.1 (45.7)	13.5 (21.0)	8.7 (△22.2)	9.8 (△28.0)	12.3 (△19.8)	7.4 (△31.5)	6.8 (△51.3)
프린터	0.3 (△3.7)	0.4 (6.3)	0.4 (15.7)	0.3 (0.5)	0.4 (17.3)	0.4 (△0.5)	0.4 (3.4)	0.4 (△8.2)	0.4 (16.0)	0.4 (62.7)	0.4 (19.1)	0.4 (35.3)	0.3 (△4.5)
모니터	0.8 (63.2)	0.9 (63.3)	1.3 (191.1)	1.0 (111.9)	1.2 (119.2)	1.1 (125.8)	1.1 (101.9)	1.0 (72.2)	1.1 (51.6)	1.0 (64.2)	1.1 (55.9)	1.1 (55.8)	1.1 (41.7)

자료 : IITP, KTSPI

그림 1-1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56.8	25.3	32.7	미국	3.3	-42.6	33.6	59.3	14.4	36.8
2	중국	44.8	8.9	25.8	홍콩	1.7	-31.9	17.2	17.3	0.7	10.7
3	홍콩	19.1	52.4	11.0	중국	1.2	-67.4	12.3	31.0	-22.2	19.2
4	일본	5.6	11.5	3.2	일본	0.4	30.4	4.3	6.5	23.7	4.0
5	대만	4.9	52.1	2.8	네덜란드	0.4	-67.5	4.1	6.9	73.3	4.3
6	네덜란드	4.7	58.3	2.7	베트남	0.4	130.3	4.0	3.9	197.8	2.4
7	멕시코	4.7	35.4	2.7	폴란드	0.3	32.6	3.0	3.2	44.1	2.0
8	싱가포르	4.3	106.0	2.5	싱가포르	0.2	-43.3	1.8	3.9	-3.4	2.4
9	아일랜드	4.2	94.9	2.4	대만	0.2	-59.5	1.8	4.2	-5.3	2.6
10	독일	2.8	7.3	1.6	멕시코	0.2	-56.3	1.7	3.8	-15.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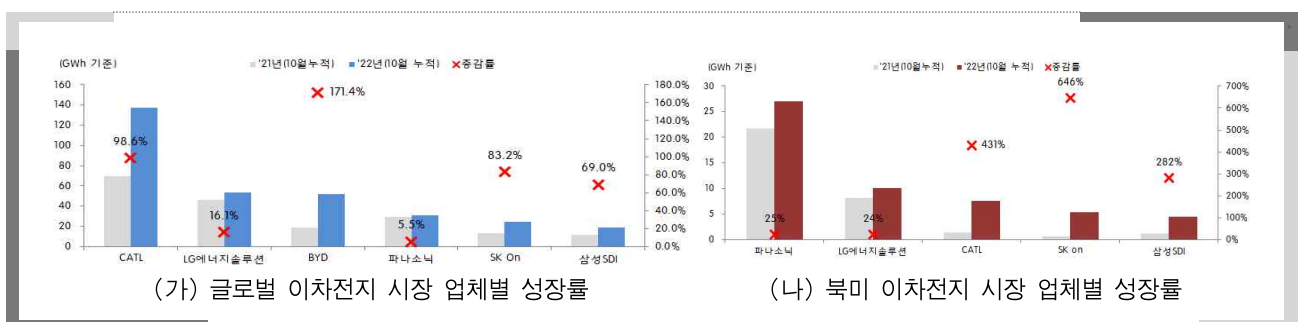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 1) 수출 환경

###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시장 성장 등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도 우상향

- (시장 규모) '22.10월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사용량은 전년 대비 75.4% 증가한 390.4GWh 형성(SNE리서치, '22.12월)
- (글로벌) 전 세계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 속에서도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
- 동 기간 중국 업체인 CATL(137.7GWh, 98.6%↑), BYD(51.5GWh, 171.4%↑) 등은 모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1, 3위를 수성. 다만 일본 파나소닉(30.8GWh, 5.5%↑) 등은 상위 업체의 평균을 밑도는 성장률에 그치며 점유율 또한 축소(△5.2%p)되고 있는 양상
- 국내 업체도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소폭(6.9%p) 하락하였으나 전방 시장의 판매 호조 등으로 견조한 두 자릿수대의 성장을 지속하며 2, 5, 6위를 유지
- (북미) 동 기간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56.4GWh, 61%↑)은 두 자릿수 성장. 특히 파나소닉은 글로벌 시장에서 4위에 그쳤으나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수요를 중심으로 48%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지속
  - ※ '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195만 대(25%↑)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 시장(129만 대, 38%↑)이 IRA 시행으로 인한 보조금 확대 정책 등으로 가장 큰 폭 증가할 전망(유진투자증권, 11.28일)
- 이어 LG에너지솔루션(18%), CATL(14%)이 2, 3위를 기록하였고 SK on은 전년 동기 대비 646% 급증하며 3단계 상승한 4위에 랭크. 삼성SDI도 큰 폭(282%) 성장하며 국내 업체의 증가세가 뚜렷
  - ※ 미국의 IRA 시행에 따라 포드·현대·GM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둔 국내 3사와 테슬라를 주요 고객사로 둔 파나소닉·CATL 간의 북미 시장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그림 1-16 | 글로벌 및 북미 이차전지 시장 업체별 성장률' 22.10월 누적 기준



자료 : SNE리서치, 2022.12.

## □ 중국을 제외하고 북미·유럽 시장으로 양분되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 내 경쟁이 격화

- (북미) 유럽의 에너지 비용 급등, 미국의 IRA('23.3월부터 적용 예정) 등으로 이차전지 업체들은 유럽이 아닌 북미 지역으로 투자를 선회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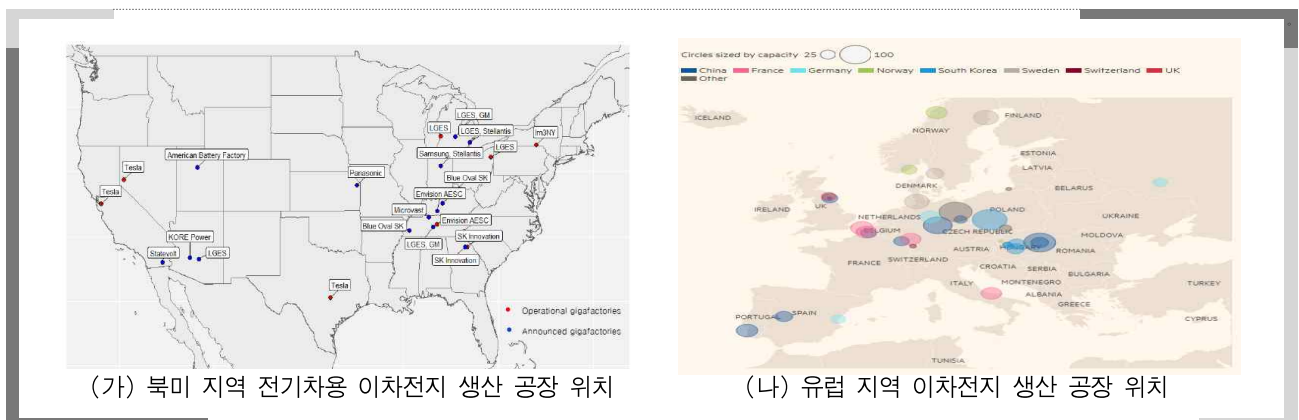
※ 미국은 12.19일 IRA 시행을 위한 핵심광물 및 이차전지 부품 요건 등의 세부 규칙을 담은 지침을 '22.3월에 공개할 것이라 밝혀, 내년 3월부터 IRA 법안이 본격 발효될 예정

표 1-12 이차전지 업체별 주요 내용

업체명	주요 내용
<b>northvol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동 사는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 급등, 美 IRA 시행 등으로 기존 계획이었던 독일 하이데 배터리 공장 착공 대신 미국 내 신규 공장 설립을 우선 수행할지 고심 중인 상황</li> <li>※ IRA 시행으로 미국에서는 6억~8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이 기대되나 독일은 1.6억 달러 수준에 불과</li> </ul>
<b>LG 에너지솔루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인 얼티엄셀즈는 美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23억 달러를 투자('21.4월)하여 신공장('23.4분기부터 가동 예정)을 건설 중인 가운데, '22.12.2일 생산량 40% 확대(35→50GWh)를 위해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li> <li>※ 향후 북미 지역에서 韓 생산 능력은 412~427GWh 수준이나 日은 도요타·파나소닉 등 약 507~522GWh 규모(노스캐롤라이나 공장은 제외)로 전망. 이에 LGES는 생산 능력 제고를 위해 추가 투자금을 투입(뉴스1, 12.5일)</li> <li>• 12.13일 얼티엄셀즈는 미 정부로부터 25억 달러의 대출을 허가받으며 장기 투자 자금 조달에도 성공해 눈길. 해당 금액은 美 오하이오·테네시·미시간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며 '25년 이후 얼티엄셀즈의 전체 생산능력은 145GWh로 확대될 전망</li> </ul>
<b>SK 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현대차와 이차전지 합작 공장('25년 이후 본격 가동 예정)을 건립할 것이라 발표하며 美 현지 생산력을 빠르게 확장(12.8일)</li> </ul>
<b>Panasoni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고객사였던 테슬라의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북미 고객사 확보를 위해 40억 달러를 투입하여 美 캔자스주에 30GWh급 이차전지 셀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22.7월)</li> </ul>

- (유럽) 중국 업체들은 IRA 여파로 미 진입로가 막히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점유를 확대

그림 1-17 북미 지역 전기차용 이차전지 및 유럽 지역 이차전지 생산 공장 위치



자료 : 유안타증권, 2022.11. 재인용 /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재인용



- 유럽은 강력한 친환경 정책 등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이며 이차전지 수요도 폭증하고 있는 지역.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IRA 시행 예정인 미국 대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시장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

※ '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중 유럽 시장(323만 대, 3.0%↑)이 차지하는 비중은 25.8%로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유진투자증권, 11.28일)

- (CATL) 헝가리 데브레첸에 73.4억 유로를 투자해 獨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합작 공장을 연내 설립할 것이라 발표('22.8월). 해당 공장은 100GWh급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생산 기지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지역에 대거 포진해 있는 완성차 업체들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

※ 엔비전 AESC도 닛산·르노와 협력하여 각각 영국 선더랜드, 프랑스 두에에 합작 공장을 설립 중인 상황

- 이와 같이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생산 기지 건설을 진행하며 '31년까지 유럽 지역에 322GWh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Financial Times, 12.5일, 원소스 Benchmark Minerals)

※ 한국은 동 기간 유럽 지역 내 192GWh 규모의 생산력으로 두 번째로 크고 프랑스·스웨덴 등이 뒤이를 전망

- 완성차 업체들은 IRA 시행 등으로 수익성 확보, 주요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수급 다변화 전략 구사

- (혼다) CATL과 7년간('24~'30년) 123GWh 규모의 이차전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해당 물량은 혼다차이나의 중국 공장에 공급될 예정(12.8일)

※ 日 완성차 업체 혼다는 미국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 이외에는 CATL로부터 이차전지를 수급 받을 것으로 예상

- (현대차) CTP 이차전지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높은 CATL과 공급 계약을 체결('21.2월)해 '22년 7.5만 대 분량의 이차전지를 수급한 것으로 추정. '23년에는 14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CATL의 이차전지를 채용할 것으로 관측

※ 미국 시장에서는 국내 이차전지 업체와의 협력을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CATL과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꾀할 방침

####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및 이차전지 JV 현황〉

완성차 업체	EV 플랫폼명	적용되는 차량	이차전지 공급사	이차전지 JV
테슬라	ModelS, X, 3, Y	ModelS, X, 3, Y	파나소닉, LGES, CATL	파나소닉
GM	BEV2, BEV3(Ultium)	볼트 EV, 볼트 EUV	LGES, CATL, China	LGES
폭스바겐	MEB	ID.3, ID.4	LGES, 삼성SDI, CATL, SK on	노스볼트, 귀쉬안
	MLB evo	e-Tron		
	J1	e-Tron GT		
	PPE	아우디, 포르쉐 타이칸 등		
현대차그룹	E-GMP	아이오닉5, EV6	LGES, SK on, CATL	LGES
메르세데스-벤츠	EVA2	EQE, EQS	LGES, SK on, CATL	-
스텔란티스	CMP, eVMP	DS3 크로스백 E-텐스	LGES, 삼성SDI, CATL	LGES, 삼성SDI, SaFT
도요타	e-TNGA	bZ4X 콘셉트카	파나소닉, CATL, CALB	파나소닉
볼보	SEA	Zeekr 001, XC20, Lynk&Co Zero Concept	CATL, LGES, China Local	CATL

자료 : 유안타증권, 2022.11. 재인용

## 2) 수출 동향

### □ '22.11월 축전지 수출(7.4억 달러, 0.7%↑)은 전방 수요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 **(품목별)** 부분품 수출 반등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 다만 11월 수출은 상승 폭이 축소
  - (축전지 : 6.8억 달러, 0.5%↑) 고성능 축전지를 탑재한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친환경 정책을 위한 ESS용 수요 견조세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 위기 고조, 고인플레이션 등의 비우호적 환경이 더해지면서 전체 축전지 수출 성장 폭은 크게 둔화
  - (부분품 : 0.6억 달러, 1.5%↑) 중국(0.2억 달러, △38.7%)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0.2억 달러, 119.8%↑)의 고성장, 폴란드 수출(0.1억 달러, 112.3%↑) 반등 등으로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지역별)** 미국·일본·대만 등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 등으로 수출 증가
  - 미국(3.6억 달러, 53.2%↑)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축전지(3.5억 달러, 51.2%↑), 부분품(0.2억 달러, 119.8%↑)의 수요 견조세 등으로 '20.6월 이후 장기간 성장 곡선을 유지
  - 일본(0.5억 달러, 53.4%↑)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행보가 지속되면서 ESS용 축전지(0.3억 달러) 등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며 수출 상위국 2위에 등극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0.5억 달러, △26.1%)은 전기 요금 급등,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 추진('23년부터 시행 예정)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 폭이 16.2%p 확대되며 수출 상위국 3위로 하락
    - ※ 對독일 축전지 수출 증감률 추이(%) : ('22.8월) 58.5↑, (9월) 33.3%↑, (10월) △9.9, (11월) △26.1
  - 국내 업체가 대만(0.3억 달러, 363.1%↑) 대형 시멘트社의 ESS 프로젝트 수주에 잇달아 성공하며 ESS용 축전지를 중심으로 '22.4월부터 세 자릿수대의 고성장을 지속

**표 1-13 축전지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11	12	'22.1	2	3	4	5	6	7	8	9	10	11
축전지	7.3 (7.5)	7.4 (3.4)	7.3 (16.2)	6.9 (10.8)	8.7 (9.3)	8.1 (12.4)	8.4 (15.8)	8.0 (△1.8)	8.8 (12.1)	9.4 (36.0)	9.5 (30.8)	8.0 (17.0)	7.4 (0.7)
축전지	6.8 (11.6)	6.7 (6.3)	6.6 (17.5)	6.3 (14.4)	7.9 (11.8)	7.4 (15.1)	7.8 (18.2)	7.3 (△1.1)	8.2 (15.0)	8.7 (41.3)	8.8 (34.3)	7.5 (19.1)	6.8 (0.5)
부분품	0.5 (△26.4)	0.6 (△20.4)	0.7 (2.8)	0.6 (△16.2)	0.7 (△16.3)	0.7 (△12.4)	0.7 (△8.7)	0.6 (△14.1)	0.7 (△15.2)	0.7 (△10.7)	0.6 (△7.3)	0.5 (△9.5)	0.6 (1.5)

자료 : IITP, KTSPI



그림 1-18 축전지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4 축전지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27.4	123.9	31.6	미국	3.6	53.2	49.0	36.6	44.7	40.4
2	독일	9.9	-2.3	11.4	일본	0.5	53.4	6.8	4.3	36.1	4.7
3	중국	8.5	-24.9	9.8	독일	0.5	-26.1	6.8	9.5	7.3	10.5
4	폴란드	5.7	-16.4	6.6	중국	0.4	-27.2	5.3	5.6	-29.2	6.2
5	베트남	3.9	2.2	4.5	대만	0.3	363.1	4.4	2.1	256.9	2.3
6	일본	3.5	5.8	4.0	베트남	0.3	-21.0	3.9	4.3	27.5	4.8
7	헝가리	2.6	90.9	3.0	인도	0.2	87.6	2.4	1.9	379.9	2.1
8	호주	2.1	41.8	2.4	폴란드	0.2	40.7	2.2	2.9	-47.7	3.2
9	홍콩	1.8	-37.1	2.0	네덜란드	0.1	109.2	1.2	0.4	-7.0	0.4
10	프랑스	1.6	32.1	1.9	벨기에	0.1	206.1	1.2	0.7	174.1	0.8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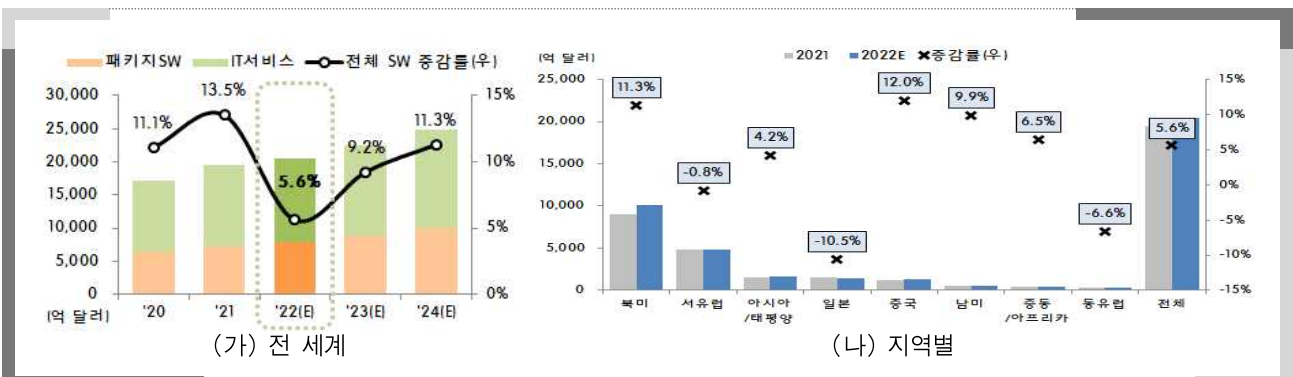
## 7 SW

### 1) 수출 환경

#### □ 글로벌 SW 시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지속 성장하나 증가세는 둔화 예상

- **(시장 전망)** 데이터 활용 증가 등으로 '22년 SW 시장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2조 4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 확대를 전망. 다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는 둔화 예상(Gartner, '22.9월)
  - 디지털 우선 전략,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보편화 등으로 데이터 활용 및 주권 확보의 중요성,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도입 등이 증가. 이에 따라 SW 도입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 등으로 종전 전망(7.5%↑) 대비 하향 조정
    - ※ 글로벌 SW시장 성장률 추이 : ('21년) 13.5%↑ → ('22년F) 5.6%↑ → ('23년F) 9.2%↑
  - (IT서비스 : 1조 2,581억 달러, 4.2%↑) 서비스형 인프라(I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비대면 환경 등의 확대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
  - (패키지SW : 7,904억 달러, 8.0%↑) 비대면 업무 환경 확산, 보안 솔루션 도입 등의 확대로 시스템 인프라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 SW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선전하며 SW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 디지털 전환에 따른 SW 투자 확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름세가 전망되나 경기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이 지속되면서 일본, 동유럽·서유럽 지역은 감소를 예측
  - 중국(12.0%↑)의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남미(9.9%↑), 중동/아프리카(6.5%↑), 아시아/태평양(4.2%↑) 등 신흥 시장과 더불어 선진 시장인 북미(11.3%↑)에서도 증가세를 예상
  - 경기 침체, 에너지 부족, 라우 전쟁의 영향 등으로 SW 관련 투자가 제한되면서 동유럽(△6.6%)·서유럽(△0.8%)은 하락이 예상. 또한 일본(△10.5%)도 보수적인 성향의 SW시장 상황으로 감소 전망

그림 1-19 전 세계 및 지역별 SW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2.9.

## □ '22.3분기 매출 호조를 기록한 국내 IT서비스 업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전망

-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22.3분기 매출액 증가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으며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전망

표 1-15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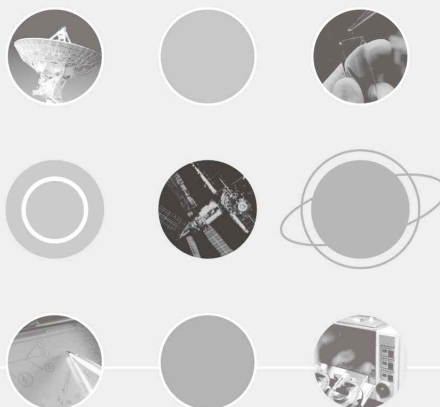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3분기 실적)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서비스 사업의 약진과 더불어 물류 사업의 선전으로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달성</li> <li>-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4조 1,981억 원으로 선전했으나 영업이익은 1,8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하락을 기록</li> <li>-(IT서비스) SaaS 사업 수주 등과 더불어 전사적자원관리(ERP) 대외사업, 제조실행시스템(MES) 해외 사업 확산 등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난 1조 4,871억 원을 달성</li> <li>-(물류) 첼로 스퀘어 국내외 고객 확대, 해외 내륙운송·물류센터 운영 확대, 설비 이전 물류 및 제약·바이오 물류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라 2조 7,110억 원의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성장</li> <li>-다만 경기 둔화에 따른 고객사의 IT 투자 지연과 함께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사업 확장에 따른 전문 인력 교육 및 인프라 투자 등의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li> <li>•기업형 클라우드 플랫폼 '브라이틱스 AI(Brightics AI)'가 국내 기업 최초로 IDC MarketScape의 AI Lifecycle Platforms 부문에서 '주요 사업자'로 등재되며 글로벌 기술력을 확인</li> <li>-브라이틱스 AI는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가능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 준비 단계 자동화, 직관적인 AI 모델 제작 및 실행, 다양한 산업의 분석 모델 제공 및 알고리즘 추천 등의 범용성 및 편의성으로 방대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li> <li>※IDC는 분석 대상 기업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 3~5년 후 사업 전략, 고객 세그먼트 등을 종합 평가해 '선도자, 주요 사업자, 도전자, 참가자'로 마켓스케이프 보고서에 등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3분기 실적) 클라우드, 스마트팩토리 등 디지털 전환 사업의 성장,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 등으로 3분기 누적 매출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li> <li>-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조 1,677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도 9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나며 견조한 실적을 달성</li> <li>-또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최초로 3조원을 돌파(3조 2,024억 원, 22%↑)하였으며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47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li> <li>•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본격화</li> <li>-행정수도 이전(자바섬의 자카르타 → 보르네오섬의 누산타라)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은 '45년까지 약 350억 달러를 투입해 서울 면적 4배(2560km<sup>2</sup>)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계획</li> <li>-동 사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행정수도 누산타라의 '스마트서비스 콘셉트 설계'에 참여하여 토지 이용 계획, 교통 신호 체계, 주택 건설 등 기본 설계를 담당하며 이를 기반으로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상</li> <li>※LG CNS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참여하여 '25년까지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에 세종시를 벤치마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3분기 실적) 디지털 전환 사업 IT서비스 사업 수주 등으로 매출은 증가했으나 투자 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감소</li> <li>-대형 금융·공공·유통 고객사에 대한 차세대·시스템통합(SI) 사업, 산업 전반에서의 디지털 플랫폼·클라우드 사업 수주 등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106억 원을 달성하며 선전했으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일시적 투자 및 비용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은 174억 원(△48%)으로 집계</li> <li>-한편 누적 매출액은 1조 4,967억 원(13.6%↑), 영업이익은 1,298억 원(△13.1%)을 기록</li> <li>•스마트팩토리 플랫폼 아이팩츠(I-FACTS)를 기반으로 SKC 자회사 애플릭스가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건설 중인 반도체 부품 제조 공장에 특화된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에 착수</li> <li>-전 생산 공정 자동화, 운영 프로세스 표준화, 실시간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통합 운영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생산 오류 최소화를 통한 제품 수율 상승을 기대</li> </ul>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II

## 트레이드 GPS





## II

## 트레이드 GPS<sup>3)</sup>

### 1

### 인도 - PCB(인쇄회로기판)

#### □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 개발 투자 기조에 따라 GDP 및 제조업 성장이 기대

- 경제 개발 정책, 생산 기지 증가 등에 따라 인도의 생산성 및 제조 역량이 강화될 전망
  - '14년 모디 인도 총리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증대 등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경제 개발 프로젝트 'Make in India'를 추진
    - ※ 모디 1기 정부('14년~'19년)는 전반적인 사업 환경을 개선. 이어 모디 2기 정부('20년~)는 자립인도(self-reliant India) 달성을 위해 제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제도를 시행
  - 또한 인도는 내수시장 성장, 환율 및 물가 안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에 따른 접근성 증가 등 제조업 업체들의 투자 등을 적극 유도
    - ※ 인도 중앙은행의 금융 변동성 축소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으로 인도의 환율 가치는 신흥국 및 선진국 대비 소폭만 하락. 또한 '22.11월 인도의 물가상승률은 6.77%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 (Reserve Bank of India, '22.11월)
  - 한편 애플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탈중국화 및 인도의 제조업 투자 유치 증가로 인도가 최적의 생산 기지로 부상하면서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

#### ○ (참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 PLI 제도는 규모의 경제 실현,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지원책으로 '20년대 중후반까지 인도 내 생산 제조업체에 2조 8,000억 루피를 지원할 예정
  - ※ 국내외 제조업체를 사전에 선별하여 투자, 매출, 국내 부가가치 등 산업별로 상이한 조건을 매년 달성하는 업체에 지원금을 부여
- PLI 제도 대상 제조업 세부 분야 수는 '20.3월 3개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22.9월 15개를 기록. 지원금의 비중은 신성장산업에 집중
  - ※ PLI제도 대상 제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대규모 생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재생에너지, 의료기기, 화학제품, 의약품, 전기통신기기, 식품, 직물·의류, IT, 원료의약품, 금속, 백색가전제품, 항공
- 한편 타타 그룹, 아다니, 릴라이언스 등 인도 대기업들이 PLI 제도에 포함된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 재구성을 본격화할 전망

3)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 '22.9월 기준 PLI 제도의 주요 내용 >

산업	주요 제품	총 지원계획	내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반도체	7,600억 루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산업의 전략산업화로 자국 내 반도체 탑재 내구재의 소비 확대를 고려하여 최대 규모의 PLI 제도 예산을 투입</li> <li>'22.9월 프로젝트 비용 대비 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li> </ul>
전자제품 대규모 생산	휴대폰	4,095억 루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17년 생산규모는 9,000억 루피였으나 '21년~'22년 2조 7,500억 루피를 기록하며 3배 이상 확대</li> <li>총 생산에서 휴대폰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에서 16%로 증가</li> </ul>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모듈	2,400억 루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으로 태양광 발전 용량이 ('16년) 6.8GW → ('21년) 40.1GW로 확대</li> <li>'30년 280GW 태양광 발전을 목표로 발생하는 발전 모듈 수요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충족할 계획</li> <li>'22.9월 기준 계획 대비 5배 이상 예산을 확대</li> </ul>
화학제품	배터리	1,810억 루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1월 배터리 산업 지원 계획인 50Gwh의 2.6배인 130Gwh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li> </ul>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2.

-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기조에 따라 인도의 GDP 및 제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내수 회복, 정부의 제조업 투자 등으로 인도의 GDP 성장률은 ('22.2분기) 13.5%↑, (3분기) 6.3%↑로 성장세를 유지. 이에 따라 '31년까지 GDP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하면서 10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을 이룰 전망(모건스탠리, '22.12월)
    - 또한 저가의 노동력과 제조비용, 개방적 투자 등에 따라 인도의 GDP 중 제조업 비중은 현재 15.6%에서 '31년 21%로 상승하며 1조 4,9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21년 기준 인도의 GDP는 3조 1,734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6위에 올랐으며, '22.1분기 GDP는 8,547억 달러로 처음으로 영국(8,160억 달러)을 제치고 5위에 자리매김
- ※ '21년 기준 전 세계 GDP 순위(세계은행) : (1위, 미국) 22조 9,961억 달러, (2위, 중국) 17조 7,340억 달러, (3위, 일본) 4조 9,374억 달러, (4위, 독일) 4조 2,231억 달러, (5위, 영국) 3조 1,869억 달러

**그림 2-1 | 인도의 GDP 성장률 및 '21년 기준 국가별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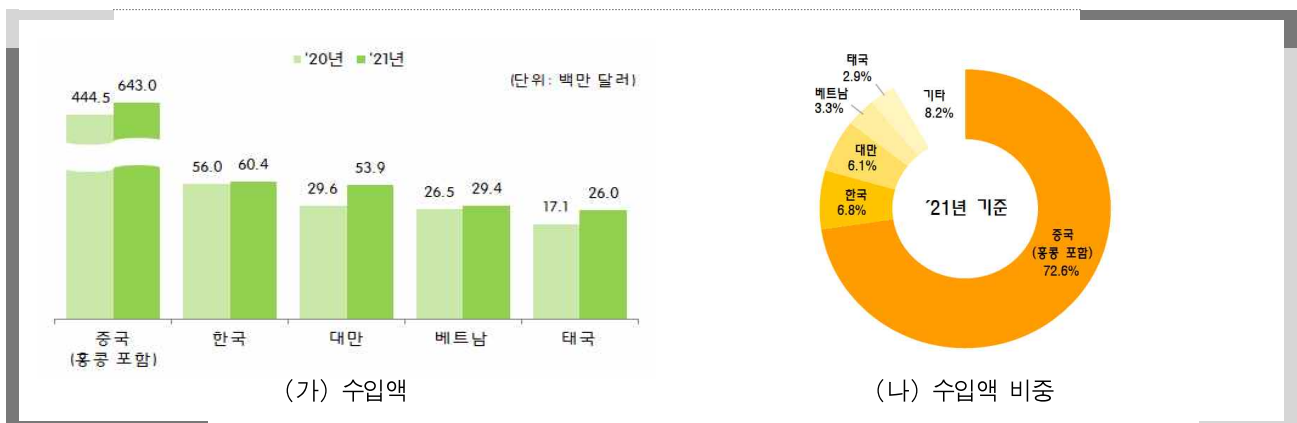


자료 : 세계은행

## □ 인도 내 생산 및 소비 증가로 PCB 시장 성장이 예상되나 낮은 자급률로 수입 확대 전망

- 인도의 전자제품 시장 성장 및 수요 증가와 더불어 PCB 시장의 동반 성장을 예상
  - 도시화, 중산층의 소득 증가 등으로 소비가 견조하게 성장함에 따라 인도의 전자제품 시장이 '16년 1,400억 달러 돌파 이후 '22년 4,000억 달러(CAGR 약 19%↑)를 넘어서며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KOTRA, '22.5월)
  - ※ 2022~2023 회계연도 4월~10월 누적 기준 인도의 휴대폰 수출액은 5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22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국무역협회, '22.12월)
  -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시행, 반도체 기기의 소형화 및 전자제품의 기능 향상 등으로 인도의 PCB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1년부터 '26년까지 인도의 PCB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을 예측
- PCB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에 따른 낮은 자급률로 수입 의존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인도 내 약 200개의 PCB 회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0%가 영세업체로 단면·양면·다층 PCB 생산에 주력.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연성 기판 등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
  - 인도는 PCB 수요의 65%를 수입에 의존. '21년 기준으로 중국(홍콩 포함, 6억 4,301만 달러, 112.2%↑)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으며, 다음으로 한국(6,044만 달러, 8.0%↑)에서 주로 수입
  - ※ 인도의 PCB 수입액(KOTRA, '22.5월) : ('20년) 6억 2,214만 달러, △4.5% → ('21년) 8억 8,536만 달러, 42.3%↑

그림 2-2 | 국가별 인도의 PCB 수입액 추이 및 비중





자료 : KOTRA, 2022.5.

### ○ (참고) PCB(Printed circuit board)

- PCB는 전자기기의 부품을 표준화한 방식으로 고정 및 연결하기 위해 배선을 패턴화한 기판을 일컬으며 PC,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 4차 산업혁명, 반도체 디지털화, 전자부품의 다양화 등에 따라 PCB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 이에 따라 고성능, 고집적 등이 요구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져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

### 〈 주요 반도체 PCB 〉

종류	구조	내용	주요 활용처
FC-BGA (Flip chip Ball Grid Ar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집적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와 연결하기 위한 고집적 패키지 기판</li> <li>반도체 칩은 플립칩(Flip Chip) 형태로 기판에 실장되고 기판은 솔더볼(Solder ball)을 활용한 BGA 방식으로 메인 PCB와 연결</li> </ul>	PC, 노트북, 서버용 CPU 및 GPU 등 고사양 기기
FC-CSP (Flip chip Chip Scale Pack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프를 통해 뒤집어진 형태로 기판과 연결하는 구조의 패키지 기판</li> <li>패키지 기판과 메인 PCB 사이에는 솔더볼을 이용한 BGA를 사용하며 반도체 칩과 기판의 크기가 비슷한 CSP를 적용</li> </ul>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용 AP



자료 : 대신증권, 2021.11. 재인용

## □ FC-BGA 등 고부가 기판 생산 능력 확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업체들은 투자를 단행

- 고집적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고부가가치 PCB 제품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증가
  - 전기차·AI·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온라인 정보 처리량 증가 등으로 복잡한 반도체를 장착하는 FC-BGA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증가. 이에 따라 글로벌 PCB 업체들의 생산 기술 및 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국내 PCB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젠딩 테크놀로지, 유니마이크론 등 글로벌 PCB 제조업체들도 고부가 기판인 FC-BGA 중심의 대규모 시설 및 설비 투자를 진행

표 2-1 국내 PCB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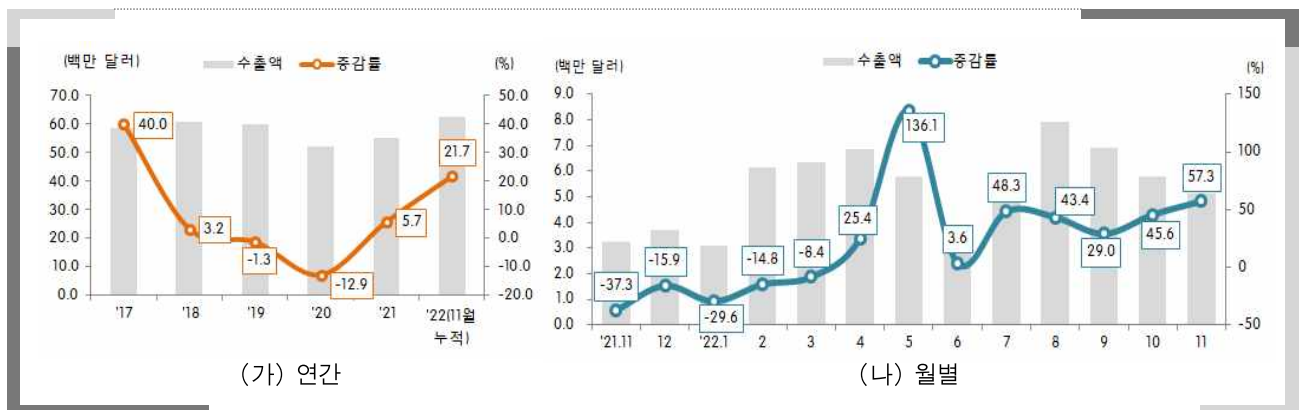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b>삼성전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기는 '21년 말 베트남 생산 법인에 9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시설 투자를 발표. '22.2월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li> <li>• '22.3월 부산에 FC-BGA 공장 증축 및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 또한 22.6월 부산, 세종, 베트남 등 패키지 기판 증설에 3,000억 원 추가 투자를 발표하는 등 FC-BGA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한 투자를 확대</li> <li>※ 삼성전기는 '22.상반기 생산설비 증대 등에 5,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약 56.1%인 2,803억 원 (256%↑)을 FC-BGA 등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 투입</li> <li>• 일본 등 해외 업체들이 주도하는 고성능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의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을 목표로 '22.11월 국내 최초 서버용 FC-BGA 양산을 시작</li> <li>※ 동 사의 서버용 FC-BGA는 고속 신호처리 대응을 위해 일반 제품에 비해 4배(75mm×75mm) 크기, 2배(20층) 이상의 층을 구현</li> </ul>
 <b>LG이노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전자로부터 경북 구미 A3 공장을 2,834억 원에 인수하여 공장 일부에 FC-BGA 생산라인을 마련할 예정</li> <li>※ LG전자의 구미 A1, A2, A3 공장 중 최대 규모인 A3 공장은 연면적 23,000㎡로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및 반도체 기판 생산을 계획</li> <li>• 동 사는 AI,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FC-BGA 개발 공정에 적용. 제조 과정에서 열과 압력 등으로 기판이 휘는 현상을 최소화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23년 양산을 시작할 예정</li> <li>※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현실의 기계, 장비 등을 컴퓨터 속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li> <li>• 또한 코어리스뿐만 아니라 얇은 코어, 두꺼운 코어 등 용도에 맞게 다양한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코어리스 기술을 FC-BGA 기판에 적용</li> <li>※ 코어리스 기술은 반도체 기판 내부에 들어가는 코어(내부 지지층)를 제거하는 공법</li> </ul>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 (수출 동향) 인도 내 제조업 생산력 증가에 따라 對인도 PCB 수출은 호조세 유지 전망

- (전체) '22.11월 對인도 PCB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한 513만 달러를 기록
  - (연간) 'Make in India' 등 제조 역량 강화 지원 정책 등에 따른 인도 내 전자제품 생산 증가를 배경으로 '22년(11월 누적 기준) 수출(6,259만 달러)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
  - '18년 6,000만 달러대를 첫 돌파하며 4년 연속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로 '20년 수출은 전년 대비 12.9% 감소하며 큰 폭 하락
  - 이후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정책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 다변화로 인도 내 생산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21년 수출은 상승 전환. '22년(11월 누적)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증가 기조
    - ※ 對인도 수출액(11월 누적 기준) : ('17년) 5,375만 달러 → ('18년) 5,546만 달러 → ('19년) 5,511만 달러 → ('20년) 4,771만 달러 → ('21년) 5,140만 달러 → ('22년) 6,259만 달러
  - (월별) '22.4월 700만 달러(25.4%↑)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 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22.5월 세 자릿수 증가 후 6월 성장폭이 일시 둔화됐으나 7월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그림 2-3 | 對인도 PCB 연간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2 | 對 인도 PCB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11	12	'22.1	2	3	4	5	6	7	8	9	10	11
PCB	3.3 (△37.3)	3.7 (△15.9)	3.1 (△29.6)	6.2 (△14.8)	6.3 (△8.4)	6.8 (25.4)	5.8 (136.1)	3.5 (3.6)	5.1 (48.3)	7.9 (43.4)	6.9 (29.0)	5.8 (45.6)	5.1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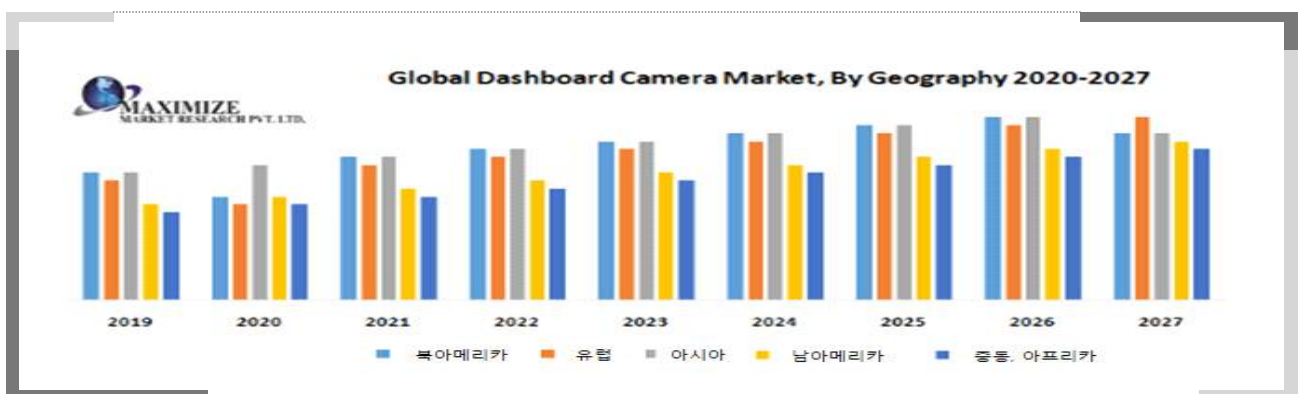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 2 블랙박스

### □ 도난·교통사고 등의 증가로 운전자·보행자의 안전 제고를 위해 고성능 블랙박스에 주목

-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의 블랙박스 수요가 확대될 전망
  - 기존 미국·유럽·호주 등은 블랙박스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고 자동차 배터리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는 인식이 높아 블랙박스를 크게 선호하지 않아 보급률이 저조
    - ※ 시장조사기관 트렌드모니터 등에 따르면 한국의 블랙박스 설치율은 90%인 반면 유럽·일본 등은 10~20%로 낮은 수준
  - 하지만 최근 선진국 소비자들은 사생활 침해보다도 뺑소니 및 차량 내 물건 도난 방지,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 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 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블랙박스에 대한 인식이 큰 폭 개선
    - ※ 호주 보험 협회에 따르면 호주의 블랙박스 보급률은 '14년 7% 수준이었으나 '19년 21%(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 → '21년 26%(영국 블랙박스 제조사 넥스트베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KOTRA, '21.8월)
  - 또한 각국 정부가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고 보험사들도 블랙박스 장착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블랙박스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실정
  - 게다가 최근 자동차 교체 수요도 확대되면서 글로벌 블랙박스 시장은 '21년 36.2억 달러 수준에서 '30년 세 배가량 증가한 108.6억 달러('22~'30년 CAGR 13.0%↑)에 달할 전망(Straits Research, '22.6월)
    - ※ 테슬라 등은 전방·후방 블랙박스를 탑재한 상태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블랙박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그림 2-4 | 글로벌 블랙박스 보급률 추이



자료 : KOTRA, Maximize market research, 2020.1.

- 인공지능·통신모듈 탑재로 커넥티드 및 ADAS 기능 등이 강화된 블랙박스 소비가 증가
  - 최근 블랙박스는 화질 개선, 안정적인 녹화 지속, 정확한 사고 분석 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저조도 및 급격한 온도 변화 속에서도 선명하고 끊기지 않는 고화질 영상 녹화 기능을 지원







- ※ 차량에 발생하는 모든 충격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차량 승·하차, 트렁크 개폐 등의 비사고 상황으로 추정되는 불필요한 충격 안내는 제외하고 확인이 필요한 충격만을 구분해 사고의 크기와 위치 등을 분석 제공
- 또한 블랙박스에 통신모듈을 탑재해 커넥티드 기능을 활성화하여 차량 사고 또는 충격 발생 시 연동된 스마트폰으로 차주에게 즉각적인 상황 전달이 가능하고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랙박스 원격 조정도 가능
- 뿐만 아니라 ADAS(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도 적용되어 차선 이탈 경고, 사각 지대 감지, 전방 추돌 등을 스스로 인식하며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
- 단순한 녹화 기능만 제공하던 블랙박스가 운전 보조, 사고 분석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고성능 기능을 지원하는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 주요국 정부는 교통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블랙박스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

- 각국은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시행하던 블랙박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장착 의무화 법안 등을 추진하는 등 블랙박스 수요를 촉진

표 2-3 국가별 블랙박스 보급 확대 정책

국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는 '22.7.6일부터 판매되는 차량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22.6월)을 발효</li> <li>- EU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화를 도입. 해당 시행령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4년부터는 모든 신차에 적용될 방침</li> <li>※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 카메라 또는 센서가 있는 후진 보조 장치, 운전자 졸음 경고 시스템, 사고기록장치, 비상 제동 등을 의미</li> <li>※이어 승용차·경상용차의 경우에는 차선 유지 시스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버스·트럭의 경우에는 사각 지대 감지, 보행자 경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등 추가 장착이 필요</li> <li>• 또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시대 개화에 대비해 현재 UN이 지정한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을 기준으로 데이터 기록 규정, 안전 성능 모니터링 등의 세부 규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li> <li>• (독일) '18.5월 연방대법원이 교통사고 당시를 녹화한 블랙박스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이어 EU의 운행 보조 장치 탑재 의무화 흐름과 함께 독일의 블랙박스 수요 확대가 기대</li> <li>- 정부 이외에도 독일 보험사 바이리셰가 블랙박스 이용자에게 보험료를 15% 인하해 주는 상품을 출시하며 블랙박스 사용을 권장</li> <li>※한편 블랙박스를 자전거에도 설치하는 비율이 늘고 있어 신수요로도 주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8.5월부터 미국에서 출시되는 약 4,536kg 이하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탑재를 의무화</li> <li>-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운전자 시야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블랙박스 장착을 허가. 이에 미국 소비자들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빈번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 당시를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Dash cam)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4월 국토교통성은 '22.5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후방에 카메라 및 장애물 감지센서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li> <li>- '20년 기준 일본 전체 자동차의 블랙박스 탑재 비중은 50%, 일반 소비자의 블랙박스 탑재율은 약 11%로 현저히 낮은 가운데 일본 정부의 후방 카메라 의무화 법안 도입으로 규정 준수를 위한 블랙박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하는 버스나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li> <li>- 차량의 운행상황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사업용 자동차는 영상기록장치 필수 탑재토록 지정</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 블랙박스에 인공지능·커넥티드 기술 등을 적용해 업체들은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

- 글로벌 업체들은 블랙박스 성능 강화를 통해 유럽·일본 등의 신규 시장 공략을 본격화
  - (팅크웨어) '21.12월 BMW 본사와 237억 원 규모의 블랙박스('ACE 3.0 Pro', 'ACE 3.0')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해 눈길
  - '25년까지 총 79개국에 BMW向 블랙박스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기존 주력 판매국이었던 일본·북미 이외에도 새로운 시장인 유럽 등으로 진출하며 수요 활로를 확대해 나갈 방침
  - 또한 커넥티드 기능이 탑재된 QHD-FHD 초고화질 블랙박스 '아이나비 VX1000'을 출시. 해당 제품은 저전력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129시간 동안 안전하게 녹화 등이 가능(11.6일)
    - ※ 특히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주는 서비스 '아이나비 커넥티드 스탠다드 플러스'를 통해 현재 이용자의 차량 위치, 운행 기록, 주차충격 알림, 소모품 알림 등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
  - (파인디지털) '22.11월 출시한 블랙박스 'X1100 POWER'는 ADAS 기능('ADAS PRO+')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AI가 진짜 충격을 선별해 내는 'AI 충격 안내 2.0' 기능이 탑재돼 눈길
  - (앤씨엔) '22.10월부터 일본 볼보에 PDI(Pre Delivery Inspection)<sup>4)</sup> 형태로 블랙박스 공급을 시작. 동 제품은 360도 2채널로 ADAS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술 고도화로 납품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 진입에 성공해 눈길
    - ※ 360도로 촬영돼 왜곡된 영상은 앤씨엔이 보유한 이미지 프로세싱 영상 보정 기술을 이용해 평면 형태로 변환 제공
  - (Garmin) '22.5월 자전거용 블랙박스 '바리아 RCT715'를 출시
  - 블랙박스 카메라가 탑재된 자전거용 후방 레이더로 약 140m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탐지 가능.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할 경우 연동된 기기(스마트워치 등)를 통해 사용자에게 시각적·청각적 알람을 제공
    - ※ 야간이 아닌 주간인 경우에는 최대 1.6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차량 감지가 가능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
  - 또한 동 제품은 1080p 화질과 30 프레임의 녹화 기능도 지원

그림 2-5 | 신제품 이미지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4) 수입 차량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입항 후에 정밀 점검을 시행. 이 때 고객 요청에 따라 점검과 함께 블랙박스 등을 현지에 맞는 제품으로 장착해 주는 것을 의미

## □ (수출 동향) 소비자 인식 개선, 주요국 정부의 장차 의무 규제 등으로 블랙박스 수출은 성장

- '22년(11월 누적 기준) 블랙박스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호조 지속
  - (연간) '18년(1억 4,327만 달러, 50.8%↑) 블랙박스 수출은 일본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억 달러대를 돌파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로 반등 기록
  - '19년도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20년(1억 3,466만 달러, △11.9%) 코로나19 등으로 반락. 다만 수출액은 1억 달러대를 지속
  - '21년(2억 4,105만 달러, 79.0%↑)은 일본·미국·호주 등으로의 판매 호조로 사상 첫 2억 달러대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재차 경신. '22년에도 미국(8,140만 달러, 146.6%↑)으로의 수출 급증 등에 따라 11월 누적 기준(2억 9,240만 달러, 34.7%↑) 3억 달러대에 육박하는 실적 기록
  - (월별) '22.5월(3,157만 달러, 54.2%↑)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데 이어 '22.11월(2,748만 달러, 37.7%↑)까지('22.10월을 제외하고) 23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눈길

그림 2-6 연간 및 월별 블랙박스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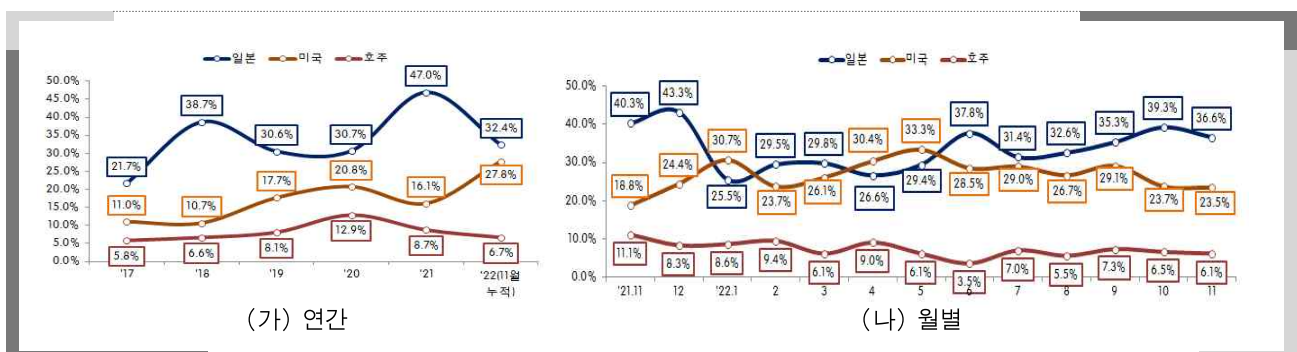


주 : 2021년까지는 HSKCODE 8525803000, 2022년 이후는 8525899000 사용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對미 수출 비중이 '22년 누적 27.8%까지 증가하며 1위 일본과의 격차를 큰 폭 축소

그림 2-7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IITP, KTSPI

### 3 Ex-Briefing

#### □ 동맹국의 제재 동참, 수출관리규정 개정 등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규제 심화

- 일본·네덜란드가 미국의 중국 봉쇄 조치에 동참하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은 난항이 예상
  -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이 '22.10월 발표한 對중국 반도체 제재 동참을 발표. 이에 따라 14n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 제조가 가능한 장비 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
    - ※ 미국은 '22.10월 14n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8nm 이상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등 對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
  - 양국의 동참으로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가 규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길목이 차단
    - ※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 :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KLM (일본)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수입하지 못함에 따라 구형 모델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활용해 7nm급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으나 수출 확보에 난항
    - ※ 중국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베이팡, 상하이웨이, 중웨이 등은 28nm급 기술에 머물러 있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자급이 어려운 상황
  - 또한 화웨이, 알리바바 등은 5nm급 반도체 설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 화흥반도체 등의 기술력이 미치지 못해 대만의 TSMC에서 생산하는 등 반도체 자급을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이 절실하나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로 발전 길목이 차단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AI 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첨단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 36개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 지정하며 한층 더 압박을 강화
  - 미국은 '22.12.16일부로 중국 36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면서 개정된 수출관리규정(EAR)을 발표(12.15일). 수출통제 대상 업체는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관련 부품과 장비 구매가 불가능
    - ※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명단 추가에 대해서 국가안보,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기술개발에서의 중국 견제 의도라는 견해가 우세
  - 수출통제 대상 기업에 군사 목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제품 등 수출 관리 품목 판매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 다만 미국이 대상 기업에 거부추정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사실상 허가는 불가능할 전망
  - 또한 AI칩 개발 관련 21개 업체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 등을 사용할 경우 수출이 불가



표 2-4 수출통제 업체 및 이유

품 목	업 체	이 유
반도체	YMTC, YMTC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HCSE)	•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하이커비전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존재
	평신웨이(PXW) 반도체제조	• 수출통제 대상의 규제 우회를 도왔다는 이유로 수출통제대상에 포함
고성능 시칩	캄브리콘 및 계열사,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계열사, 중국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등 21개	• 중국의 주요 시칩 연구·개발·생산·판매 업체로 중국군과 방산업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 기관과 긴밀히 연관 ※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기타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 북경산업기계자동차연구소(RIAMB) 등 7개	• 극초음속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등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
	상하이집적회로연구개발센터,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원천기술을 확보 또는 확보를 시도
	텐진티엔디웨이테크놀로지	• 중국 정부가 신장의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감시하는 데 관여하고 이란혁명수비대의 금지 품목 조달을 지원
	유니스트롱 과학기술	• 이란 군용 드론과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전자제품을 수출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 (참고) 대만 폭스콘의 칭화유니 투자 철회

- 사모펀드 베이징즈루자산관리, 베이징젠광자산관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파산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 중국 반도체 대기업 칭화유니를 600억 위안에 인수
- '22.7월 폭스콘은 사모펀드 출자 방식으로 칭화유니 인수 자금의 약 10%인 53억 8,000만 위안을 투자
  - ※ 베이징즈루, 베이징젠광은 민간 사모펀드지만 실제 중국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들이 해당 컨소시엄에 인수 자금을 투자.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칭화유니를 화생시켰다는 의견이 존재하면서 폭스콘도 동참한 것으로 평가
- 대만 정부가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해당 투자건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자 '22.12월 폭스콘은 중국 자회사 싱웨이가 보유했던 53억 8,000만 위안의 칭화유니 지분 매각에 합의하면서 중국 기업 엔타이 하이슈에 전량 처분, 5개월 만에 투자를 철회
- 다만 대만 정부는 폭스콘의 투자 철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투자 사실이 명백하므로 최대 2,500만 대만달러의 벌금 부과를 검토

## □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제재 강화에 중국은 WTO 제소, 투자 확대 등으로 적극 대응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정식으로 제소
  - '22.12.12일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남용, 반도체 및 기타 제품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 방해 등에 따른 글로벌 산업 공급망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기타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 중국이 '협약'을 요청하면 미국은 10일 이내 응답, 30일 이내 협의 개시, 60일 이내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미국이 對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요청을 수락하고

반도체 제재를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존재

- 분쟁 미해결 시 중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소송 진행이 가능. ‘패널 보고서’ 채택 후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한 국가는 패널의 권고 및 입장에 대한 표명과 함께 15개월 내 패널 보고서 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행이 필요

※ WTO 패널은 DSB(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 분야 권위자, 통상전문 관료,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1개월 내에 위원 선정 등 필요 작업 후 6개월 동안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패널 보고서를 작성

- 한편 분쟁해결절차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중국이 승소하더라도 보복할 마땅한 조치가 없으나 중국의 WTO 제소는 미국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상징적 의미가 존재

○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세금 우대 등 대규모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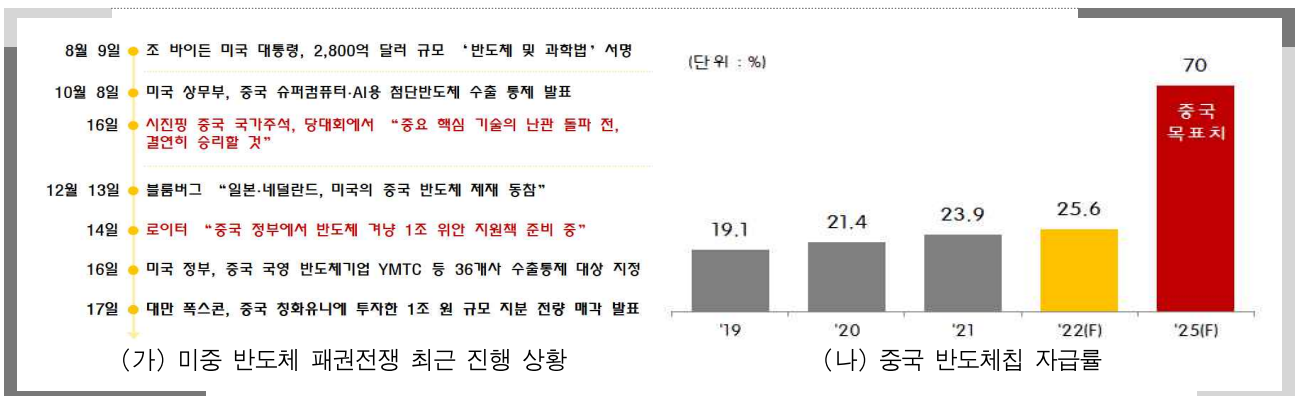
- 중국은 '25년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자국 반도체 업체들의 반도체 생산, 조립, 패키징,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건설 및 확장, 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

※ '22년 중국 반도체칩 자급률은 전년(23.9%) 대비 1.7%p 증가한 25.6%를 기록할 전망(IFS)

- 또한 자국 반도체 생산, 연구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보조금 및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위안의 재정적 지원책을 운영할 계획

- 반도체 제조·생산 공장의 장비 구매 보조에 대부분의 금액이 사용될 전망으로 장비 구매 비용의 20%까지 지원할 예정. 또한 지원책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도 포함

**그림 2-8 |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 최근 진행 상황 및 중국 반도체칩 자급률 추이**



자료 : 동아일보, 2022.12. 재인용 / 동아일보, 2022.12. (원소스 IBS)

## □ 美 IRA 법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며 EU는 '유럽식 IRA' 시행을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

○ 미국과 유럽의 TTC 회의 이후에도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의 진전이 없어 EU는 보조금 지급 확대 등 투자 방안을 진행할 계획

-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작은 결함이 있으며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며 IRA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1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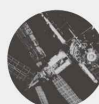


- 미국과 EU는 美 IRA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화두로 3차 TTC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진행 후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미수립(12.5일)
  - ※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핵심으로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지급 내용이 포함. 다만 최종 조립지가 북미인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23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 등 부품 관련 하위 규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 EU, 일본 등이 거세게 반발
- TTC 회의를 통해 IRA 관련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EU 집행위원장은 IRA의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는 등 강경한 비판 의견을 전달. 또한 '23.1월 美 IRA에 맞서기 위해 EU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공공투자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12.14일)
  - ※ EU 집행위원장은 'Buy American', 차별적 세금감면 혜택, 북미산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혜택 등으로 IRA는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이어 유럽의 청정 기술 기반의 산업 근간 강화를 위해 '유럽식 IRA' 시행을 주장
- 독일과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미국이 IRA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EU 자체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동선언을 발표(12.19일)
  - ※ 양국 공동선언문은 EU의 친환경 산업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보조금 지급 확대와 더불어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기준, 환경적 부작용 저감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



# III

## 부록





## III

## 부록

## 1

##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9월 당월			9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252,245	9.4	100.0	438,787	-3.3	100.0	4,050,209	5.1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84,065	10.9	70.1	300,135	-7.2	68.4	2,831,832	5.1	69.9
- 전자부품	2,301,413	12.4	43.8	190,211	-8.2	43.3	1,760,386	4.9	43.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420	16.4	3.3	15,533	-14.3	3.5	139,383	9.9	3.4
- 통신 및 방송기기	387,675	3.6	7.4	27,074	-19.7	6.2	285,400	1.1	7.0
- 영상 및 음향기기	92,022	10.7	1.8	6,891	-17.9	1.6	71,617	8.4	1.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28,536	9.2	13.9	60,426	8.2	13.8	575,046	6.3	14.2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42,324	4.2	16.0	73,506	4.3	16.8	647,184	2.8	16.0
- 통신서비스	373,863	1.7	7.1	31,532	0.6	7.2	281,764	1.2	7.0
· 유선통신서비스	100,651	-0.2	1.9	8,544	1.3	1.9	76,066	1.3	1.9
· 무선통신서비스	252,120	2.7	4.8	21,177	0.1	4.8	189,357	1.0	4.7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1,092	-0.2	0.4	1,811	2.9	0.4	16,341	3.6	0.4
- 방송서비스	201,835	3.3	3.8	18,258	9.1	4.2	160,528	5.7	4.0
· 지상파방송서비스	38,896	8.8	0.7	3,383	-0.2	0.8	28,715	-0.3	0.7
· 유료방송서비스	70,042	3.8	1.3	6,416	6.7	1.5	57,561	9.3	1.4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2,371	0.8	1.8	8,421	15.5	1.9	73,889	5.4	1.8
· 기타방송서비스	526	1.0	0.0	38	-13.8	0.0	363	-7.2	0.0
- 정보서비스	266,626	8.7	5.1	23,716	5.8	5.4	204,892	2.9	5.1
· 정보인프라서비스	43,841	1.3	0.8	3,891	4.2	0.9	34,329	6.3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2,785	10.3	4.2	19,825	6.1	4.5	170,563	2.2	4.2
○ 소프트웨어	725,855	8.3	13.8	65,146	9.0	14.8	571,193	7.4	14.1
- 패키지 소프트웨어	167,332	7.3	3.2	14,416	3.5	3.3	119,249	-2.5	2.9
- 게임 소프트웨어	145,061	0.8	2.8	14,345	24.7	3.3	121,426	14.5	3.0
- IT 서비스	413,462	11.6	7.9	36,385	5.9	8.3	330,518	8.8	8.2

자료 : KEA, KAIT, 2022.11.

## 2 2022년 11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1/4분기	1,464.0	489.5	13.6	1,366.0	309.2	19.0	98.0	180.3
2/4분기	1,567.3	540.8	29.6	1,492.3	319.0	19.1	75.0	221.8
3/4분기	1,645.4	610.4	27.7	1,568.9	340.8	19.1	76.5	269.6
4/4분기	1,767.3	635.4	24.9	1,723.7	381.2	22.0	43.6	254.2
상반기	3,031.3	1,030.3	21.5	2,858.3	628.2	19.1	173.0	402.1
하반기	3,412.7	1,245.8	26.2	3,292.6	722.0	20.6	120.1	523.7
1월	480.1	162.8	21.5	444.6	107.8	22.0	35.5	55.0
2월	447.1	152.6	11.4	424.0	92.0	19.4	23.0	60.6
3월	536.9	174.1	8.9	497.4	109.5	15.9	39.5	64.6
4월	512.3	170.5	32.5	508.9	107.9	21.7	3.3	62.6
5월	507.3	177.3	27.4	479.1	105.2	17.9	28.1	72.1
6월	547.8	193.0	29.1	504.3	105.8	17.8	43.5	87.1
7월	554.6	194.8	30.1	536.8	113.2	14.9	17.9	81.5
8월	531.7	202.3	33.0	515.8	113.9	23.8	15.8	88.5
9월	559.1	213.3	21.1	516.4	113.7	18.9	42.8	99.6
10월	556.6	199.1	21.5	538.5	121.1	18.5	18.1	78.0
11월	603.3	214.9	30.0	573.6	127.7	23.1	29.7	87.2
12월	607.3	221.4	23.3	611.6	132.4	24.3	-4.3	89.0
2022년	6,290.6	2,164.3	5.3	6,716.3	1,406.7	15.5	-425.7	757.6
1/4분기	1,734.1	617.2	26.1	1,776.1	365.9	18.3	-42.0	251.3
2/4분기	1,771.3	607.4	12.3	1,834.9	378.1	18.5	-63.5	229.3
3/4분기	1,741.2	594.5	-2.6	1,924.2	396.8	16.4	-183.0	197.7
상반기	3,505.4	1,224.6	18.9	3,610.9	744.0	18.4	-105.5	480.6
1월	554.6	196.1	20.4	604.4	123.3	14.4	-49.8	72.8
2월	541.6	188.5	23.6	534.0	113.9	23.9	7.6	74.6
3월	637.9	232.6	33.6	637.7	128.6	17.5	0.2	104.0
4월	578.5	199.3	16.9	602.0	121.4	12.5	-23.6	77.9
5월	616.0	202.0	13.9	631.4	126.1	19.8	-15.4	75.9
6월	576.9	206.0	6.8	601.4	130.5	23.3	-24.6	75.5
7월	602.6	193.1	-0.9	653.5	132.3	16.8	-50.9	60.8
8월	566.5	192.9	-4.7	660.5	135.2	18.7	-94.0	57.8
9월	572.1	208.5	-2.2	610.2	129.3	13.7	-38.2	79.2
10월	524.8	178.7	-10.3	591.8	137.6	13.6	-67.0	41.1
11월	519.1	166.6	-22.5	589.3	128.4	0.6	-70.1	38.2

자료 : IITP, KTSPI



**표 3-3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24.0	100.0	16,660	-22.5	100.0	216,429	5.3	100.0
○전자부품	165,059	25.9	72.5	11,538	-25.7	69.3	155,222	4.4	71.7
- 반도체	128,699	28.4	56.5	8,656	-28.4	52.0	121,606	5.0	56.2
· 메모리반도체	82,431	28.9	36.2	3,843	-49.7	23.1	69,317	-6.4	32.0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	17.5	4,248	8.8	25.5	46,417	29.4	21.4
- 디스플레이	24,657	19.0	10.8	2,009	-17.3	12.1	22,815	2.8	10.5
- 전자관	5	17.1	0.0	1	5.9	0.0	5	15.6	0.0
- 수동부품	2,344	15.4	1.0	182	-4.2	1.1	1,965	-8.4	0.9
PCB	5,790	15.1	2.5	421	-17.3	2.5	5,576	5.9	2.6
- 접속부품	3,338	17.0	1.5	252	-14.3	1.5	3,052	0.5	1.4
- 기타전자부품	160	21.0	0.1	11	-32.3	0.1	136	-7.4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25.0	7.6	974	-45.2	5.8	16,127	2.5	7.5
- 컴퓨터	2,293	11.3	1.0	82	-62.9	0.5	906	-55.9	0.4
- 주변기기	15,093	27.4	6.6	892	-42.7	5.4	15,220	11.3	7.0
· 디스플레이장치	745	28.5	0.3	107	41.7	0.6	1,209	83.2	0.6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14.4	0.2	31	-4.5	0.2	424	12.2	0.2
· 보조기억장치	12,954	28.2	5.7	677	-51.3	4.1	12,649	7.9	5.8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22.4	7.4	1,650	-4.4	9.9	16,443	8.5	7.6
- 통신기기	16,171	22.4	7.1	1,645	-1.7	9.9	16,375	12.0	7.6
· 유선통신기기	957	16.0	0.4	93	-0.1	0.6	1,109	29.1	0.5
· 무선통신기기	15,214	22.9	6.7	1,551	-1.8	9.3	15,266	10.9	7.1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24.6	6.1	1,383	-6.2	8.3	13,729	8.5	6.3
- 방송용 장비	571	21.6	0.3	5	-90.7	0.0	68	-87.0	0.0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9.9	1.0	158	-15.3	1.0	2,000	-7.5	0.9
- 영상기기	1,528	-14.4	0.7	82	-26.9	0.5	1,166	-17.2	0.5
· TV	1,065	-27.7	0.5	41	-47.1	0.2	697	-29.5	0.3
LCD TV	34	-82.9	0.0	4	-0.1	0.0	47	63.4	0.0
TV 부분품	1,014	-13.0	0.4	33	-52.8	0.2	630	-33.5	0.3
· 셋탑박스	22	66.0	0.0	1	184.9	0.0	17	-18.8	0.0
- 음향기기	802	-0.1	0.4	65	-8.9	0.4	779	8.1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6.4	0.0	11	255.7	0.1	55	61.1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17.3	11.4	2,341	3.3	14.0	26,637	12.3	12.3
-가정용전기기기	5,709	36.0	2.5	395	-29.8	2.4	5,509	6.0	2.5
-사무용기기	427	25.0	0.2	27	-7.4	0.2	308	-22.3	0.1
-의료용기기	2,564	25.6	1.1	257	7.3	1.5	2,557	10.6	1.2
-전기 장비	11,920	14.2	5.2	1,020	1.4	6.1	12,309	13.2	5.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15.2	3.9	749	1.0	4.5	9,154	14.1	4.2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35,024	19.9	100.0	12,843	0.6	100.0	140,673	15.5	100.0
○전자부품	74,610	21.0	55.3	7,970	8.9	62.1	82,678	23.3	58.8
- 반도체	61,719	21.9	45.7	6,914	13.3	53.8	69,377	25.4	49.3
· 메모리반도체	21,579	14.2	16.0	1,882	-22.0	14.7	23,415	23.0	16.6
· 시스템반도체	31,479	27.7	23.3	4,311	49.8	33.6	37,914	33.2	27.0
- 디스플레이	3,869	1.3	2.9	324	-19.0	2.5	4,658	32.1	3.3
- 전자관	64	14.5	0.0	10	55.4	0.1	68	13.7	0.0
- 수동부품	2,800	25.6	2.1	189	-20.6	1.5	2,378	-7.4	1.7
PCB	3,101	31.2	2.3	280	-12.3	2.2	3,294	18.0	2.3
- 접속부품	2,518	16.1	1.9	190	-6.9	1.5	2,179	-5.6	1.5
- 기타전자부품	436	52.0	0.3	55	31.7	0.4	636	61.6	0.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749	24.8	12.4	1,292	-6.8	10.1	16,246	7.0	11.5
- 컴퓨터	10,233	28.7	7.6	726	-14.9	5.7	9,470	2.5	6.7
- 주변기기	6,516	19.1	4.8	566	6.1	4.4	6,775	14.1	4.8
· 디스플레이장치	1,090	24.4	0.8	91	-17.6	0.7	1,254	25.9	0.9
· 프린터(부분품포함)	963	11.1	0.7	69	-8.8	0.5	863	-2.1	0.6
· 보조기억장치	3,243	21.5	2.4	314	25.8	2.4	3,521	19.0	2.5
○통신 및 방송기기	16,362	12.8	12.1	1,039	-34.5	8.1	14,212	-4.3	10.1
- 통신기기	15,815	12.7	11.7	1,023	-33.3	8.0	14,055	-2.1	10.0
· 유선통신기기	2,131	11.2	1.6	188	5.0	1.5	1,727	-12.1	1.2
· 무선통신기기	13,684	12.9	10.1	835	-38.3	6.5	12,328	-0.5	8.8
휴대폰(부분품 포함)	10,176	12.2	7.5	565	-43.2	4.4	8,742	-4.9	6.2
- 방송용 장비	547	14.8	0.4	16	-69.6	0.1	157	-68.4	0.1
○영상 및 음향기기	3,915	15.9	2.9	299	-19.2	2.3	3,298	-7.9	2.3
- 영상기기	2,464	14.9	1.8	142	-41.7	1.1	1,946	-14.0	1.4
· TV	1,891	18.2	1.4	100	-45.4	0.8	1,357	-22.6	1.0
LCD TV	929	40.0	0.7	62	-42.1	0.5	734	-14.0	0.5
TV 부분품	575	-29.7	0.4	20	-52.0	0.2	355	-33.7	0.3
· 셋탑박스	214	11.0	0.2	7	-69.8	0.1	177	-6.2	0.1
- 음향기기	1,099	9.5	0.8	109	18.2	0.8	1,068	7.1	0.8
- 기타 영상음향기기	353	52.8	0.3	49	38.9	0.4	284	-11.5	0.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388	18.9	17.3	2,243	6.4	17.5	24,240	14.8	17.2
- 가정용전기기기	4,560	15.6	3.4	305	-23.7	2.4	4,324	2.9	3.1
- 사무용기기	33	2.5	0.0	3	0.0	0.0	34	13.3	0.0
- 의료용기기	2,287	4.8	1.7	204	5.8	1.6	2,149	4.8	1.5
- 전기 장비	8,256	39.8	6.1	996	21.5	7.8	9,894	34.4	7.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191	66.1	3.1	626	37.6	4.9	6,011	62.9	4.3

자료 : IITP, KTSPI



표 3-5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135,024	92,584	16,660	12,843	3,817	75,756
○전자부품	165,059	74,610	90,448	11,538	7,970	3,567	72,544
- 반도체	128,699	61,719	66,980	8,656	6,914	1,742	52,228
· 메모리반도체	82,431	21,579	60,852	3,843	1,882	1,961	45,901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79	8,273	4,248	4,311	-62	8,503
- 디스플레이	24,657	3,869	20,788	2,009	324	1,685	18,156
- 전자관	5	64	-59	1	10	-10	-63
- 수동부품	2,344	2,800	-456	182	189	-7	-413
PCB	5,790	3,101	2,689	421	280	141	2,282
- 접속부품	3,338	2,518	820	252	190	62	873
- 기타전자부품	160	436	-276	11	55	-44	-5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16,749	637	974	1,292	-319	-119
- 컴퓨터	2,293	10,233	-7,940	82	726	-644	-8,564
- 주변기기	15,093	6,516	8,577	892	566	326	8,445
· 디스플레이장치	745	1,090	-345	107	91	16	-45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963	-548	31	69	-37	-439
· 보조기억장치	12,954	3,243	9,711	677	314	363	9,128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16,362	380	1,650	1,039	611	2,232
- 통신기기	16,171	15,815	356	1,645	1,023	622	2,320
· 유선통신기기	957	2,131	-1,174	93	188	-94	-618
· 무선통신기기	15,214	13,684	1,530	1,551	835	716	2,938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10,176	3,818	1,383	565	817	4,987
- 방송용 장비	571	547	24	5	16	-11	-88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3,915	-1,548	158	299	-141	-1,298
- 영상기기	1,528	2,464	-936	82	142	-59	-780
· TV	1,065	1,891	-826	41	100	-59	-660
LCD TV	34	929	-895	4	62	-58	-688
TV 부분품	1,014	575	439	33	20	13	275
· 셋탑박스	22	214	-192	1	7	-6	-160
- 음향기기	802	1,099	-297	65	109	-44	-289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353	-315	11	49	-37	-22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23,388	2,667	2,341	2,243	98	2,397
- 가정용전기기기	5,709	4,560	1,149	395	305	89	1,185
- 사무용기기	427	33	394	27	3	24	274
- 의료용기기	2,564	2,287	277	257	204	53	408
- 전기 장비	11,920	8,256	3,664	1,020	996	24	2,415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4,191	4,583	749	626	123	3,144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27,608	24.0	100.0	16,660	-22.5	100.0	216,429	5.3	100.0
○ 아시아	176,605	24.7	77.6	13,121	-22.0	78.8	167,513	5.2	77.4
- 중국(홍콩 포함)	107,525	23.8	47.2	7,021	-30.2	42.1	95,552	-1.4	44.1
- 일 본	4,314	10.7	1.9	315	-17.2	1.9	4,104	4.5	1.9
- ASEAN	49,033	21.0	21.5	4,301	-10.7	25.8	49,612	12.4	22.9
· 싱가포르	4,775	47.8	2.1	565	23.9	3.4	6,356	50.2	2.9
· 인 니	893	14.7	0.4	97	2.6	0.6	1,051	29.4	0.5
· 말 련	2,507	19.3	1.1	237	8.8	1.4	2,709	19.5	1.3
· 태 국	1,354	19.8	0.6	127	4.6	0.8	1,422	16.0	0.7
· 베트남	35,133	18.0	15.4	2,996	-15.2	18.0	33,818	7.0	15.6
- 대 만	12,671	59.6	5.6	1,102	-9.3	6.6	13,778	20.7	6.4
- 인 도	2,781	25.2	1.2	352	9.6	2.1	4,122	62.4	1.9
○ 북미	28,776	26.4	12.6	1,926	-24.9	11.6	27,692	6.3	12.8
- 미 국	27,947	26.5	12.3	1,845	-25.9	11.1	26,675	5.4	12.3
- 캐나다	714	21.2	0.3	72	11.1	0.4	897	42.7	0.4
○ 유럽	15,286	21.6	6.7	1,129	-25.3	6.8	14,715	6.2	6.8
- 유럽연합	12,771	22.8	5.6	965	-24.0	5.8	12,706	10.3	5.9
· 독 일	3,522	21.9	1.5	198	-36.9	1.2	3,228	1.0	1.5
· 프랑스	844	41.9	0.4	70	2.1	0.4	848	12.6	0.4
· 이탈리아	469	43.0	0.2	47	23.1	0.3	566	32.5	0.3
- 영 국	1,044	23.5	0.5	73	-30.4	0.4	1,010	4.1	0.5
- 러시아	791	9.1	0.3	43	-37.9	0.3	445	-38.6	0.2
○ 중동	1,593	-5.2	0.7	154	9.6	0.9	1,535	7.6	0.7
- 사우디	228	-4.0	0.1	49	85.9	0.3	293	54.3	0.1
- UAE	493	-13.4	0.2	47	8.4	0.3	476	6.1	0.2
○ 중남미	4,304	13.1	1.9	257	-25.9	1.5	4,082	2.5	1.9
- 브라질	1,457	0.5	0.6	87	-30.9	0.5	1,336	-0.3	0.6
- 멕시코	2,511	19.4	1.1	149	-24.7	0.9	2,490	6.7	1.2
- 칠 레	120	49.5	0.1	5	-34.3	0.0	64	-40.9	0.0
○ 대양주	721	1.4	0.3	45	-33.0	0.3	641	-3.6	0.3
- 호 주	618	-2.5	0.3	38	-31.7	0.2	561	-1.2	0.3
○ 아프리카	309	10.1	0.1	28	-10.9	0.2	239	-17.9	0.1
※ 브릭스	82,033	22.0	36.0	6,060	-24.3	36.4	80,138	8.5	37.0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35,024	19.9	100.0	12,843	0.6	100.0	140,673	15.5	100.0
○ 아시아	112,900	21.6	83.6	11,304	2.7	88.0	118,788	16.7	84.4
- 중국(홍콩 포함)	59,700	23.8	44.2	4,271	-31.9	33.3	59,384	11.2	42.2
- 일 본	11,978	14.9	8.9	1,201	6.4	9.3	12,338	14.4	8.8
- ASEAN	23,339	13.5	17.3	1,769	-7.6	13.8	23,739	11.3	16.9
· 싱가포르	4,079	3.5	3.0	267	-14.2	2.1	4,213	14.1	3.0
· 인 니	925	94.8	0.7	51	-44.2	0.4	723	-16.4	0.5
· 말 련	3,601	9.9	2.7	325	0.7	2.5	3,684	12.1	2.6
· 태 국	2,007	29.9	1.5	159	0.0	1.2	1,954	5.4	1.4
· 베트남	11,177	14.7	8.3	814	-10.0	6.3	11,487	12.5	8.2
- 대 만	17,770	31.6	13.2	1,490	-11.7	11.6	20,645	28.0	14.7
- 인 도	105	31.8	0.1	9	4.2	0.1	106	12.2	0.1
○ 북미	9,087	8.6	6.7	690	-6.2	5.4	8,165	-1.4	5.8
- 미 국	8,720	8.5	6.5	647	-8.5	5.0	7,770	-2.2	5.5
- 캐나다	246	4.3	0.2	33	71.1	0.3	274	24.0	0.2
○ 유럽	7,925	12.8	5.9	718	7.2	5.6	7,881	9.6	5.6
- 유럽연합	6,880	12.9	5.1	622	5.8	4.8	6,906	10.5	4.9
· 독 일	3,283	11.4	2.4	265	-4.5	2.1	3,201	7.3	2.3
· 프랑스	929	24.0	0.7	102	11.4	0.8	1,102	33.0	0.8
· 이탈리아	356	1.4	0.3	35	16.0	0.3	346	4.9	0.2
- 영 국	562	9.3	0.4	47	0.1	0.4	511	1.9	0.4
- 러시아	25	18.0	0.0	1	-24.0	0.0	15	-35.7	0.0
○ 중동	655	18.6	0.5	50	-1.7	0.4	611	2.1	0.4
- 사우디	2	53.2	0.0	0	-97.1	0.0	1	-56.2	0.0
- UAE	43	-41.5	0.0	1	-73.7	0.0	8	-81.8	0.0
○ 중남미	985	10.7	0.7	74	-20.9	0.6	844	-5.4	0.6
- 브라질	16	42.8	0.0	0	-28.4	0.0	7	-56.0	0.0
- 멕시코	965	11.2	0.7	73	-21.0	0.6	833	-4.6	0.6
- 칠 레	1	-25.0	0.0	0	103.4	0.0	2	104.7	0.0
○ 대양주	115	26.1	0.1	6	-33.1	0.0	110	6.5	0.1
- 호 주	79	28.4	0.1	6	-21.1	0.0	91	26.3	0.1
○ 아프리카	18	-66.0	0.0	1	-54.0	0.0	13	-22.3	0.0
※ 브릭스	58,620	23.7	43.4	4,239	-31.6	33.0	58,306	11.1	41.4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수출	수입	수지	11월 당월			11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27,608	135,024	92,584	16,660	12,843	3,817	75,756
○ 아시아	176,605	112,900	63,705	13,121	11,304	1,817	48,725
- 중국(홍콩 포함)	107,525	59,700	47,825	7,021	4,271	2,750	36,168
- 일 본	4,314	11,978	-7,664	315	1,201	-886	-8,233
- ASEAN	49,033	23,339	25,694	4,301	1,769	2,532	25,873
· 싱가포르	4,775	4,079	696	565	267	297	2,143
· 인 니	893	925	-33	97	51	45	328
· 말 련	2,507	3,601	-1,094	237	325	-88	-975
· 태 국	1,354	2,007	-653	127	159	-32	-532
· 베트남	35,133	11,177	23,956	2,996	814	2,182	22,331
- 대 만	12,671	17,770	-5,099	1,102	1,490	-387	-6,867
- 인 도	2,781	105	2,676	352	9	343	4,016
○ 북미	28,776	9,087	19,689	1,926	690	1,235	19,527
- 미 국	27,947	8,720	19,228	1,845	647	1,197	18,905
- 캐나다	714	246	468	72	33	39	623
○ 유럽	15,286	7,925	7,360	1,129	718	411	6,834
- 유럽연합	12,771	6,880	5,891	965	622	343	5,800
· 독 일	3,522	3,283	238	198	265	-67	27
· 프랑스	844	929	-85	70	102	-31	-254
· 이탈리아	469	356	113	47	35	12	220
- 영 국	1,044	562	482	73	47	27	499
- 러시아	791	25	766	43	1	42	430
○ 중동	1,593	655	939	154	50	103	924
- 사우디	228	2	226	49	0	49	292
- UAE	493	43	450	47	1	46	468
○ 중남미	4,304	985	3,320	257	74	183	3,238
- 브라질	1,457	16	1,441	87	0	86	1,329
- 멕시코	2,511	965	1,546	149	73	76	1,657
- 칠 레	120	1	119	5	0	5	62
○ 대양주	721	115	607	45	6	39	531
- 호 주	618	79	538	38	6	32	470
○ 아프리카	309	18	291	28	1	28	226
※ 브릭 스	82,033	58,620	23,413	6,060	4,239	1,821	21,832

자료 : IITP, KTSPI



## 3

##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2,557	23.5	100.0	1,104.6	-3.6	100.0	10,461.1	4.7	100.0
○ 전자부품	3,468	32.9	27.6	288.5	-7.7	26.1	2,941.5	5.9	28.1
- 반도체	2,463	31.2	19.6	219.4	-2.6	19.9	2,215.4	13.0	21.2
- 디스플레이 패널	327	33.9	2.6	10.7	-62.7	1.0	127.6	-53.5	1.2
- 전자관	1	39.3	0.0	0.1	6.6	0.0	0.9	-5.1	0.0
- 수동부품	173	49.9	1.4	18.7	15.5	1.7	160.2	19.2	1.5
- PCB	209	38.1	1.7	14.9	-15.9	1.4	168.3	-1.0	1.6
- 접속부품	258	31.1	2.1	21.0	-2.1	1.9	224.6	7.5	2.1
- 기타 전자부품	36	50.6	0.3	3.8	9.0	0.3	44.5	54.0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437	20.4	19.4	210.0	-5.1	19.0	2,157.0	11.0	20.6
- 컴퓨터	1,681	21.4	13.4	137.6	-11.8	12.5	1,335.0	-0.1	12.8
- 주변기기	755	18.2	6.0	72.4	10.8	6.6	822.0	35.6	7.9
· 디스플레이장치	216	33.2	1.7	13.1	-36.7	1.2	191.6	13.6	1.8
· 프린터(부품포함)	142	10.2	1.1	12.5	13.5	1.1	123.1	7.6	1.2
· 보조기억장치	184	6.2	1.5	10.7	-23.3	1.0	113.4	-25.1	1.1
· 저장 매체	34	8.3	0.3	22.2	690.2	2.0	247.1	818.0	2.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80	25.2	1.4	13.8	-17.7	1.2	146.8	1.5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751	15.6	21.9	250.9	-4.0	22.7	2,014.8	-4.9	19.3
- 통신기기	2,611	15.3	20.8	249.9	0.4	22.6	2,006.7	0.0	19.2
· 유선통신기기	538	7.9	4.3	57.7	13.0	5.2	449.3	8.8	4.3
· 무선통신기기	2,073	17.4	16.5	159.9	-19.2	14.5	1,242.0	-22.1	11.9
- 방송국용 기기	132	22.1	1.1	9.3	-21.8	0.8	88.4	-16.2	0.8
○ 영상 및 음향기기	836	21.4	6.7	84.2	7.3	7.6	719.9	4.9	6.9
- 영상기기	402	19.2	3.2	26.0	-30.8	2.4	272.3	-18.1	2.6
- 음향기기	269	14.7	2.1	25.7	3.8	2.3	223.6	1.8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5	41.5	1.3	24.2	49.7	2.2	143.8	6.8	1.4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3,065	24.5	24.4	271.0	-0.2	24.5	2,627.9	6.4	25.1
- 가정용 기기	1,182	22.5	9.4	82.9	-19.8	7.5	924.7	-3.8	8.8
- 사무용 기기	49	23.1	0.4	4.6	10.2	0.4	48.3	25.3	0.5
- 의료용 기기	182	12.5	1.5	13.6	-14.1	1.2	127.4	-14.1	1.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68	10.5	2.1	21.1	1.5	1.9	198.1	-9.5	1.9
- 전기 장비	1,384	31.6	11.0	147.0	15.7	13.3	1,316.6	19.4	12.6
· 건전지 및 축전지	362	50.0	2.9	58.2	60.6	5.3	487.8	76.5	4.7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8,213	20.9	100.0	623.8	-10.8	100.0	6,334.7	-4.4	100.0
○ 전자부품	5,857	22.7	71.3	464.8	-3.9	74.5	4,760.3	0.8	75.1
- 반도체	4,977	24.4	60.6	388.8	-4.9	62.3	4,018.0	0.5	63.4
- 디스플레이 패널	314	6.1	3.8	38.9	49.2	6.2	330.9	26.2	5.2
- 전자관	2	18.3	0.0	0.1	-10.7	0.0	1.3	-15.0	0.0
- 수동부품	223	24.7	2.7	14.1	-28.9	2.3	157.8	-13.5	2.5
- PCB	123	13.3	1.5	8.6	-24.3	1.4	91.5	-8.5	1.4
- 접속부품	212	17.2	2.6	14.0	-18.8	2.3	157.2	-10.4	2.5
- 기타 전자부품	5	11.1	0.1	0.3	-16.3	0.1	3.7	1.4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531	17.8	6.5	35.5	-17.1	5.7	433.5	-0.4	6.8
- 컴퓨터	43	49.5	0.5	3.4	-15.0	0.5	36.2	5.6	0.6
- 주변기기	488	15.7	5.9	32.1	-17.3	5.1	397.4	-0.9	6.3
· 디스플레이장치	5	-34.3	0.1	0.6	13.9	0.1	3.3	-29.8	0.1
· 프린터(부품포함)	63	12.3	0.8	4.5	-17.2	0.7	44.0	-15.4	0.7
· 보조기억장치	292	13.9	3.6	14.6	-32.8	2.3	198.4	-17.9	3.1
· 저장 매체	48	1.3	0.6	7.8	104.1	1.2	90.9	138.2	1.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47.5	1.0	4.6	-36.5	0.7	60.7	-5.7	1.0
○ 통신 및 방송기기	635	24.6	7.7	25.1	-62.1	4.0	230.2	-54.5	3.6
- 통신기기	575	28.5	7.0	25.0	-59.2	4.0	229.5	-49.7	3.6
· 유선통신기기	93	34.6	1.1	10.4	7.8	1.7	84.1	12.8	1.3
· 무선통신기기	482	27.4	5.9	4.4	-91.4	0.7	49.9	-86.9	0.8
- 방송국용 기기	27	8.3	0.3	2.5	-10.3	0.4	20.5	-8.4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33	18.5	2.8	30.5	23.7	4.9	209.9	17.0	3.3
- 영상기기	186	25.6	2.3	24.2	22.6	3.9	151.5	7.0	2.4
- 음향기기	38	-10.4	0.5	3.2	-16.7	0.5	32.7	4.4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8	52.6	0.1	0.8	-30.8	0.1	5.8	-10.5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58	10.8	11.7	67.8	-16.9	10.9	700.8	-10.7	11.1
- 가정용 기기	218	12.3	2.7	14.4	-26.7	2.3	163.9	-8.5	2.6
- 사무용 기기	4	-2.7	0.1	0.2	-52.6	0.0	2.5	-31.2	0.0
- 의료용 기기	136	20.5	1.7	9.2	-11.8	1.5	94.5	-14.7	1.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94	8.2	4.8	25.6	-19.1	4.1	256.6	-20.9	4.1
- 전기 장비	205	8.8	2.5	15.1	-22.1	2.4	156.0	-6.5	2.5
· 건전지 및 축전지	74	4.2	0.9	4.8	-28.6	0.8	52.6	-11.4	0.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847	12.4	100.0	270.8	5.3	100.0	2,504.0	6.5	100.0
○ 전자부품	1,013	19.3	35.6	90.7	1.6	33.5	876.8	4.5	35.0
- 반도체	776	20.7	27.2	68.3	-0.1	25.2	656.9	2.3	26.2
- 디스플레이 패널	35	12.4	1.2	2.6	-14.7	1.0	28.8	-0.5	1.2
- 전자관	3	7.1	0.1	0.4	23.5	0.1	2.9	2.9	0.1
- 수동부품	38	21.3	1.3	3.4	2.8	1.3	34.3	9.4	1.4
- PCB	12	-2.2	0.4	1.2	22.0	0.5	11.3	11.5	0.5
- 접속부품	146	16.5	5.1	14.4	11.0	5.3	139.7	14.9	5.6
- 기타 전자부품	2	7.0	0.1	0.3	49.2	0.1	2.8	40.5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90	9.2	13.7	42.0	13.9	15.5	345.6	7.7	13.8
- 컴퓨터	167	9.7	5.9	16.5	2.4	6.1	145.2	6.0	5.8
- 주변기기	222	8.9	7.8	25.5	22.8	9.4	200.4	8.9	8.0
· 디스플레이장치	15	-0.5	0.5	1.5	22.5	0.6	15.2	23.2	0.6
· 프린터(부품포함)	35	3.9	1.2	3.2	-0.4	1.2	29.1	-0.5	1.2
· 보조기억장치	52	1.8	1.8	7.4	62.7	2.7	44.4	2.9	1.8
· 저장 매체	72	18.5	2.5	8.5	15.1	3.1	66.9	12.0	2.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9	10.7	1.7	4.9	11.0	1.8	44.9	13.3	1.8
○ 통신 및 방송기기	388	12.2	13.6	35.7	-0.1	13.2	319.9	0.4	12.8
- 통신기기	347	11.9	12.2	34.6	8.3	12.8	309.9	9.0	12.4
· 유선통신기기	169	4.9	5.9	18.9	24.1	7.0	157.8	11.9	6.3
· 무선통신기기	178	19.4	6.2	14.1	-15.5	5.2	136.1	-5.0	5.4
- 방송국용 기기	28	15.9	1.0	2.5	-5.0	0.9	24.2	2.8	1.0
○ 영상 및 음향기기	85	1.3	3.0	10.1	10.7	3.7	85.6	22.7	3.4
- 영상기기	33	-1.7	1.2	2.6	-19.3	1.0	25.9	-4.0	1.0
- 음향기기	36	-1.6	1.3	3.7	-2.9	1.4	31.6	5.0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	16.2	0.6	2.3	11.6	0.8	14.0	10.3	0.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71	8.2	34.1	92.3	7.3	34.1	876.1	9.1	35.0
- 가정용 기기	169	9.2	6.0	15.0	-5.7	5.5	141.9	1.4	5.7
- 사무용 기기	9	8.7	0.3	1.0	15.5	0.4	8.8	13.4	0.3
- 의료용 기기	278	6.1	9.8	26.5	12.6	9.8	248.2	7.7	9.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7.3	10.4	25.7	-1.2	9.5	246.3	0.4	9.8
- 전기 장비	217	11.6	7.6	21.7	9.4	8.0	208.1	16.0	8.3
· 건전지 및 축전지	52	5.3	1.8	5.3	9.1	2.0	47.2	10.8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323	19.8	100.0	636.0	7.6	100.0	5,866.0	15.0	100.0
○전자부품	1,110	24.2	17.6	106.0	13.2	16.7	1,041.5	14.6	17.8
- 반도체	860	23.7	13.6	81.6	12.7	12.8	806.5	14.7	13.7
- 디스플레이 패널	36	18.2	0.6	2.5	-11.8	0.4	24.4	-17.8	0.4
- 전자관	3	7.2	0.0	0.2	-4.6	0.0	2.2	-0.9	0.0
- 수동부품	42	39.5	0.7	3.7	3.1	0.6	42.6	24.1	0.7
- PCB	23	34.0	0.4	2.6	25.5	0.4	23.2	22.9	0.4
- 접속부품	139	23.0	2.2	14.6	22.7	2.3	135.2	17.6	2.3
- 기타 전자부품	7	44.2	0.1	0.8	39.8	0.1	7.4	37.4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70	14.1	24.8	151.1	1.1	23.8	1,414.1	11.1	24.1
- 컴퓨터	983	11.8	15.5	94.8	-1.7	14.9	861.1	8.1	14.7
- 주변기기	587	18.0	9.3	56.3	6.0	8.9	552.9	15.9	9.4
· 디스플레이장치	101	30.0	1.6	7.2	-24.9	1.1	99.7	23.6	1.7
· 프린터(부품포함)	140	20.1	2.2	13.7	13.7	2.2	123.2	5.6	2.1
· 보조기억장치	104	21.6	1.6	10.9	29.1	1.7	95.3	11.5	1.6
· 저장 매체	162	11.6	2.6	13.9	-11.5	2.2	154.5	19.0	2.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10.4	1.3	10.6	45.1	1.7	80.3	24.8	1.4
○통신 및 방송기기	1,265	16.2	20.0	135.5	7.3	21.3	1,120.4	15.5	19.1
- 통신기기	1,139	16.9	18.0	131.2	14.6	20.6	1,088.5	25.3	18.6
· 유선통신기기	443	9.6	7.0	54.6	39.4	8.6	439.4	24.4	7.5
· 무선통신기기	696	22.2	11.0	72.9	-3.1	11.5	613.4	19.0	10.5
- 방송국용 기기	117	9.1	1.9	13.0	17.5	2.0	106.5	12.4	1.8
○영상 및 음향기기	462	29.5	7.3	60.8	17.0	9.6	472.7	27.9	8.1
- 영상기기	187	16.0	3.0	17.6	-22.0	2.8	136.3	-11.0	2.3
- 음향기기	164	34.0	2.6	19.2	12.8	3.0	154.6	18.4	2.6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1	51.6	1.8	15.3	23.6	2.4	107.2	24.9	1.8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16	22.6	30.3	182.6	7.5	28.7	1,817.2	15.0	31.0
- 가정용 기기	575	26.8	9.1	48.4	-6.0	7.6	524.3	10.8	8.9
- 사무용 기기	28	15.2	0.4	3.1	28.7	0.5	29.2	27.0	0.5
- 의료용 기기	363	16.8	5.7	34.4	7.6	5.4	328.8	9.9	5.6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0	11.9	4.7	27.3	6.2	4.3	253.6	2.8	4.3
- 전기 장비	651	28.5	10.3	67.7	16.2	10.6	664.3	23.3	11.3
· 건전지 및 축전지	161	53.9	2.5	22.5	72.9	3.5	198.7	50.5	3.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06	17.2	100.0	18,531.1	15.3	100.0	159,539.5	12.6	100.0
○ 전자부품	90,410	17.4	52.2	9,752.8	16.7	52.6	85,357.7	16.0	53.5
- 반도체	54,546	17.5	31.5	6,155.1	20.3	33.2	53,394.2	20.9	33.5
- 디스플레이 패널	7,618	4.2	4.4	744.9	8.4	4.0	6,461.3	4.9	4.0
- 전자관	287	10.0	0.2	27.5	1.6	0.1	256.1	8.8	0.2
- 수동부품	11,593	23.5	6.7	1,105.2	5.6	6.0	10,351.0	8.5	6.5
- PCB	3,336	11.7	1.9	432.2	32.8	2.3	3,508.8	29.8	2.2
- 접속부품	12,240	20.5	7.1	1,205.4	11.3	6.5	10,547.8	4.1	6.6
- 기타 전자부품	789	51.8	0.5	82.4	18.5	0.4	838.4	32.2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224	14.3	8.2	1,453.7	13.8	7.8	12,634.0	6.8	7.9
- 컴퓨터	1,040	4.7	0.6	108.9	20.0	0.6	911.6	7.9	0.6
- 주변기기	13,184	15.1	7.6	1,344.8	13.3	7.3	11,722.3	6.7	7.3
· 디스플레이장치	1,339	16.0	0.8	131.3	22.8	0.7	988.1	-13.5	0.6
· 프린터(부품포함)	9,404	16.5	5.4	945.6	11.2	5.1	8,284.1	5.4	5.2
· 보조기억장치	177	-3.9	0.1	14.3	-9.0	0.1	120.8	-18.3	0.1
· 저장 매체	1,699	10.7	1.0	197.0	23.0	1.1	1,810.1	32.3	1.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66	10.1	0.3	56.6	5.3	0.3	519.3	11.3	0.3
○ 통신 및 방송기기	7,342	12.5	4.2	490.7	-19.6	2.6	3,745.9	-37.0	2.3
- 통신기기	4,131	9.7	2.4	488.4	45.8	2.6	3,724.3	11.1	2.3
· 유선통신기기	1,071	-2.0	0.6	137.3	62.2	0.7	1,070.4	21.4	0.7
· 무선통신기기	3,060	14.5	1.8	156.5	-37.5	0.8	1,359.2	-45.0	0.9
- 방송국용 기기	2,902	13.3	1.7	322.4	31.1	1.7	2,891.0	23.3	1.8
○ 영상 및 음향기기	6,029	13.8	3.5	1,168.8	30.1	6.3	7,781.5	56.0	4.9
- 영상기기	2,379	23.1	1.4	195.9	-14.5	1.1	1,779.6	-10.1	1.1
- 음향기기	483	8.0	0.3	54.7	29.7	0.3	436.4	8.4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167	8.6	1.8	598.2	-4.6	3.2	2,696.2	3.5	1.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5,301	18.6	31.9	5,665.1	15.0	30.6	50,020.3	10.1	31.4
- 가정용 기기	11,579	18.3	6.7	1,039.0	0.2	5.6	9,859.5	2.3	6.2
- 사무용 기기	416	12.5	0.2	40.3	6.4	0.2	343.6	1.6	0.2
- 의료용 기기	6,656	11.7	3.8	763.4	37.6	4.1	6,184.1	13.9	3.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2,045	22.0	12.7	2,209.6	11.3	11.9	19,340.5	6.8	12.1
- 전기 장비	14,605	17.6	8.4	1,480.7	13.1	8.0	13,215.8	11.1	8.3
· 건전지 및 축전지	7,746	24.9	4.5	782.1	6.7	4.2	7,063.1	11.7	4.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31	15.5	100.0	20,980.1	43.6	100.0	174,905.4	24.4	100.0
○전자부품	47,567	30.0	27.4	6,380.3	46.8	30.4	54,390.6	43.3	31.1
- 반도체	37,305	31.7	21.5	5,196.2	50.5	24.8	43,776.7	47.7	25.0
- 디스플레이 패널	1,904	13.1	1.1	199.3	9.5	0.9	1,706.0	10.3	1.0
- 전자관	127	6.0	0.1	15.0	44.4	0.1	111.9	3.1	0.1
- 수동부품	1,413	27.8	0.8	158.9	31.9	0.8	1,488.6	31.5	0.9
- PCB	1,620	24.4	0.9	168.1	27.4	0.8	1,627.8	24.5	0.9
- 접속부품	4,505	25.3	2.6	518.6	34.4	2.5	4,665.1	27.1	2.7
- 기타 전자부품	692	49.7	0.4	124.2	100.8	0.6	1,014.5	83.2	0.6
○컴퓨터 및 주변기기	28,054	0.6	16.2	3,239.7	51.1	15.4	27,948.3	20.6	16.0
- 컴퓨터	16,259	-4.0	9.4	1,882.0	50.3	9.0	15,348.6	13.6	8.8
- 주변기기	11,795	7.7	6.8	1,357.7	52.1	6.5	12,599.6	30.2	7.2
· 디스플레이장치	1,897	22.1	1.1	146.2	6.4	0.7	1,624.4	5.9	0.9
· 프린터(부품포함)	3,880	2.3	2.2	483.1	81.0	2.3	4,098.6	31.2	2.3
· 보조기억장치	2,450	8.9	1.4	254.9	29.1	1.2	2,342.4	14.1	1.3
· 저장 매체	1,570	-0.5	0.9	290.5	118.5	1.4	2,645.7	103.1	1.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998	12.7	1.2	183.0	15.8	0.9	1,888.5	13.9	1.1
○통신 및 방송기기	36,793	16.2	21.2	4,537.3	30.7	21.6	32,486.6	8.9	18.6
- 통신기기	33,546	16.5	19.4	4,518.5	40.0	21.5	32,254.6	18.4	18.4
· 유선통신기기	8,387	8.9	4.8	939.5	23.8	4.5	8,217.6	21.7	4.7
· 무선통신기기	25,158	19.2	14.5	3,421.4	38.7	16.3	22,427.2	9.5	12.8
- 방송국용 기기	2,721	10.1	1.6	317.5	57.7	1.5	2,795.1	28.9	1.6
○영상 및 음향기기	12,284	7.9	7.1	1,438.5	54.8	6.9	12,425.6	25.8	7.1
- 영상기기	6,839	8.3	3.9	530.0	2.2	2.5	5,063.1	-8.8	2.9
- 음향기기	3,276	3.7	1.9	339.2	20.8	1.6	3,001.2	11.7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2,169	13.9	1.3	270.6	108.6	1.3	1,798.2	10.1	1.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8,633	14.2	28.1	5,384.3	44.6	25.7	47,654.4	19.9	27.2
- 가정용 기기	15,308	12.3	8.8	1,442.5	33.7	6.9	13,333.6	5.7	7.6
- 사무용 기기	726	0.0	0.4	64.7	27.7	0.3	620.4	3.0	0.4
- 의료용 기기	7,468	13.7	4.3	735.4	20.9	3.5	7,027.1	14.9	4.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850	13.4	5.7	1,060.2	32.6	5.1	9,099.5	12.5	5.2
- 전기 장비	15,280	18.0	8.8	1,998.4	68.6	9.5	16,909.5	37.1	9.7
· 건전지 및 축전지	2,857	24.6	1.6	431.5	70.6	2.1	3,571.5	57.5	2.0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634	25.7	100.0	244.3	5.0	100.0	1,955.3	17.0	100.0
○ 전자부품	2,053	27.9	78.0	194.7	7.4	79.7	1,558.4	19.6	79.7
- 반도체	1,812	28.4	68.8	178.7	11.9	73.1	1,413.6	23.6	72.3
- 디스플레이 패널	102	22.5	3.9	4.5	-50.5	1.8	48.5	-30.8	2.5
- 전자관	0	10.4	0.0	0.0	-44.9	0.0	0.1	-15.7	0.0
- 수동부품	42	30.5	1.6	3.0	-22.2	1.2	26.7	-2.7	1.4
- PCB	66	17.4	2.5	6.0	1.2	2.4	47.3	14.4	2.4
- 접속부품	30	35.7	1.1	2.5	-9.8	1.0	21.8	12.4	1.1
- 기타 전자부품	0	24.1	0.0	0.0	-20.5	0.0	0.3	5.7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6	14.0	9.0	19.6	-2.4	8.0	161.5	9.4	8.3
- 컴퓨터	88	7.8	3.4	7.7	4.4	3.1	65.7	26.1	3.4
- 주변기기	148	18.0	5.6	11.9	-6.4	4.9	95.8	0.4	4.9
· 디스플레이장치	7	10.3	0.3	0.6	-1.6	0.2	4.5	1.1	0.2
· 프린터(부품포함)	3	24.0	0.1	0.3	20.2	0.1	2.6	20.4	0.1
· 보조기억장치	8	11.7	0.3	0.6	-26.2	0.2	5.0	-7.3	0.3
· 저장 매체	106	15.1	4.0	7.5	-13.1	3.1	61.8	-11.8	3.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24	38.6	0.9	2.9	19.7	1.2	21.9	63.9	1.1
○ 통신 및 방송기기	127	16.0	4.8	13.7	18.8	5.6	99.3	25.3	5.1
- 통신기기	112	15.5	4.3	12.3	21.2	5.1	89.6	29.3	4.6
· 유선통신기기	78	17.3	3.0	8.9	28.9	3.7	63.4	29.8	3.2
· 무선통신기기	34	11.5	1.3	3.4	4.8	1.4	26.2	28.2	1.3
- 방송국용 기기	14	19.5	0.5	1.4	10.8	0.6	9.7	8.2	0.5
○ 영상 및 음향기기	83	31.6	3.1	3.8	-50.1	1.5	39.5	-28.9	2.0
- 영상기기	76	30.9	2.9	3.3	-52.9	1.4	35.3	-31.8	1.8
- 음향기기	6	42.8	0.2	0.4	-15.4	0.2	3.9	5.7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0	16.3	0.0	0.0	86.9	0.0	0.3	56.1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34	22.6	5.1	12.6	1.9	5.1	96.6	11.5	4.9
- 가정용 기기	27	19.5	1.0	2.4	2.9	1.0	18.4	6.6	0.9
- 사무용 기기	7	19.7	0.3	0.7	-3.5	0.3	5.0	14.5	0.3
- 의료용 기기	7	14.0	0.3	0.6	-6.7	0.3	4.9	8.9	0.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43	21.2	1.6	4.2	7.2	1.7	30.3	8.9	1.5
- 전기 장비	51	27.2	1.9	4.7	-0.9	1.9	38.0	16.4	1.9
· 건전지 및 축전지	10	19.6	0.4	1.1	24.1	0.5	9.0	45.6	0.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440	10.6	100.0	131.0	-1.8	100.0	1,068.7	16.1	100.0
○ 전자부품	1,076	12.8	74.7	97.5	-3.2	74.4	815.5	18.3	76.3
- 반도체	957	12.7	66.5	88.1	-2.0	67.3	734.7	20.0	68.7
- 디스플레이 패널	19	-4.8	1.3	1.2	-23.9	0.9	10.7	-15.0	1.0
- 전자관	0	8.5	0.0	0.0	-52.8	0.0	0.3	-1.6	0.0
- 수동부품	34	24.6	2.3	2.4	-25.7	1.8	21.4	-1.2	2.0
- PCB	36	16.3	2.5	3.5	8.1	2.7	28.4	23.4	2.7
- 접속부품	28	13.2	1.9	2.1	-15.8	1.6	18.8	2.8	1.8
- 기타 전자부품	2	45.5	0.1	0.1	-19.9	0.1	1.2	4.0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	6.8	6.4	10.3	15.8	7.9	65.6	9.4	6.1
- 컴퓨터	34	11.7	2.3	3.2	-24.3	2.5	25.2	14.0	2.4
- 주변기기	59	4.2	4.1	7.1	52.4	5.4	40.4	6.8	3.8
· 디스플레이장치	8	24.5	0.5	0.6	-19.1	0.4	5.0	5.3	0.5
· 프린터(부품포함)	4	-10.3	0.3	0.3	-0.2	0.3	2.6	-4.6	0.2
· 보조기억장치	12	8.2	0.8	0.9	-10.3	0.7	6.5	-21.1	0.6
· 저장 매체	27	-3.0	1.9	2.2	21.0	1.7	18.8	10.8	1.8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	18.1	0.5	3.1	293.0	2.3	7.6	44.9	0.7
○ 통신 및 방송기기	84	1.4	5.8	6.0	5.1	4.6	51.5	5.2	4.8
- 통신기기	76	1.3	5.3	5.6	10.4	4.3	48.5	10.5	4.5
· 유선통신기기	24	4.5	1.7	2.0	5.5	1.5	16.4	2.6	1.5
· 무선통신기기	52	-0.1	3.6	3.6	13.3	2.7	32.2	15.0	3.0
- 방송국용 기기	5	4.4	0.3	0.4	11.8	0.3	3.0	0.4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5	2.8	1.8	1.8	-26.5	1.4	15.7	-4.1	1.5
- 영상기기	17	13.0	1.2	1.1	-37.3	0.8	10.2	-10.0	1.0
- 음향기기	6	-3.4	0.4	0.5	2.4	0.4	3.7	4.3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28.6	0.2	0.2	-2.9	0.1	1.8	21.7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63	4.9	11.3	15.4	-1.8	11.8	120.4	13.6	11.3
- 가정용 기기	40	9.0	2.8	3.7	0.5	2.8	29.3	12.1	2.7
- 사무용 기기	2	10.2	0.1	0.2	15.7	0.2	1.6	30.7	0.1
- 의료용 기기	15	-8.4	1.1	1.4	-17.4	1.1	11.4	18.5	1.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68	4.8	4.7	6.6	0.7	5.0	48.9	8.1	4.6
- 전기 장비	37	7.1	2.6	3.5	-2.4	2.7	29.4	22.5	2.7
· 건전지 및 축전지	12	11.7	0.8	1.4	13.3	1.1	11.0	43.9	1.0

자료 : Uncomtrade, KITA



## 4

##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9	15,237	-15.0	93,826	-5.4	909	-32.4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7	-15.2	24,180	33.8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	2,449	-42.2	47,739	343.7	88	-58.1
	2/4	2,867	-35.6	4,298	-74.9	63	-72.0
	3/4p	1,573	-56.5	3,281	-74.3	24	-89.8
직접구매 (수입)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14.7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2/4	18,972	50.0	63,235	-4.6	3,107	-25.5
	3/4p	20,429	68.9	72,027	26.4	2,997	-21.9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1.1월	177.5	257.0	24.4	29.3	118.2	129.9	45.2	61.0	88.6	100.9	147.8	183.6
2월	171.9	248.4	20.6	24.9	103.4	113.7	43.2	58.3	70.9	81.5	142.1	175.4
3월	195.4	281.9	21.0	24.6	119.4	131.4	50.6	68.3	75.5	90.6	170.4	208.9
4월	189.4	242.9	22.1	25.4	113.9	125.7	50.3	67.0	79.5	95.6	155.4	190.7
5월	207.5	264.9	23.4	26.6	112.8	124.4	54.1	71.6	74.3	89.6	146.8	180.9
6월	231.7	292.9	22.1	24.3	121.6	133.7	50.8	66.9	76.0	92.7	160.8	199.3
7월	227.7	273.4	25.3	27.8	132.6	146.2	51.7	66.2	83.4	101.8	151.1	180.8
8월	244.9	293.1	25.1	28.7	131.4	131.2	48.7	62.4	93.9	114.4	150.6	180.4
9월	256.8	308.7	23.6	28.9	128.2	128.3	56.7	72.5	104.8	130.7	167.6	200.6
10월	<b>230.0</b>	<b>288.9</b>	<b>22.2</b>	<b>29.5</b>	<b>127.8</b>	<b>127.9</b>	<b>52.4</b>	<b>66.9</b>	<b>104.8</b>	<b>129.1</b>	<b>162.5</b>	<b>189.7</b>
11월	251.3	316.8	22.7	31.1	127.2	108.0	56.7	72.4	112.3	132.5	168.8	198.0
12월	261.8	330.2	25.6	35.8	131.4	112.6	65.3	82.6	107.1	126.9	178.4	210.3
'22.1월	224.4	303.6	29.5	42.1	123.8	106.6	30.5	40.0	85.8	102.2	152.0	183.1
2월	219.0	295.1	27.1	39.3	118.7	102.1	26.0	34.3	81.3	99.3	151.4	180.8
3월	272.3	364.7	32.5	47.9	136.7	116.8	26.1	34.6	105.0	128.1	181.0	216.0
4월	229.5	309.6	27.8	42.0	128.7	111.1	30.8	40.2	87.0	105.8	153.7	179.1
5월	242.2	327.3	26.0	40.5	130.4	113.3	32.4	42.5	71.2	87.4	159.7	187.1
6월	257.5	350.8	20.4	33.3	124.5	109.2	30.7	41.4	73.5	94.3	148.7	180.7
7월	234.0	344.8	22.5	37.0	125.9	110.4	38.7	51.8	73.6	95.4	149.0	175.7
8월	227.7	339.8	21.9	36.6	122.5	108.8	33.8	46.3	82.8	107.2	152.8	185.1
9월	243.7	373.0	18.1	31.2	122.9	109.5	43.1	60.8	102.0	133.9	171.6	208.2
10월	<b>191.7</b>	<b>332.4</b>	<b>19.2</b>	<b>33.1</b>	<b>114.6</b>	<b>102.9</b>	<b>33.9</b>	<b>51.6</b>	<b>108.8</b>	<b>143.1</b>	<b>156.5</b>	<b>186.5</b>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1.1월	148.5	207.8	33.7	31.1	119.9	131.6	206.2	214.2	162.3	190.7	148.8	142.8
2월	133.5	186.8	26.4	22.8	101.8	111.1	155.5	160.4	112.7	132.3	136.6	132.1
3월	151.8	212.5	30.5	25.1	130.6	141.6	198.7	206.4	134.4	157.8	162.6	156.9
4월	151.9	206.8	28.7	22.2	123.8	131.3	167.7	174.1	149.6	176.3	135.7	131.0
5월	153.0	210.6	26.4	20.1	132.9	137.5	169.4	177.6	120.6	142.2	136.6	131.8
6월	157.8	217.0	29.7	21.6	132.4	136.1	147.1	149.5	109.6	130.3	140.1	135.1
7월	175.1	235.0	25.5	18.4	134.7	139.5	154.5	156.4	130.3	159.3	139.2	134.5
8월	174.2	233.8	25.3	19.3	139.2	144.5	157.4	159.5	139.8	170.9	131.3	126.1
9월	178.5	239.6	29.7	24.9	138.3	143.6	160.0	161.5	130.9	162.4	126.3	120.9
10월	176.2	239.1	29.9	28.8	141.2	145.9	145.0	146.8	201.2	239.5	135.6	131.1
11월	197.0	269.8	37.0	37.4	155.7	160.7	159.5	161.8	169.9	202.2	146.8	142.3
12월	205.5	281.5	26.3	27.7	146.0	150.1	189.7	192.3	157.4	187.4	165.7	161.7
'22.1월	191.7	268.4	45.3	50.1	137.1	140.7	215.5	219.2	127.0	151.4	135.1	132.2
2월	178.7	250.3	39.8	46.5	120.9	123.9	186.0	189.2	119.9	142.7	130.8	126.6
3월	197.0	275.9	37.8	45.8	138.1	141.7	187.2	192.0	154.5	184.2	150.7	145.9
4월	185.9	261.4	37.0	46.8	138.7	142.6	167.0	172.3	137.1	167.4	150.3	146.2
5월	196.6	277.7	38.2	52.0	136.2	143.6	158.3	163.9	142.6	176.4	141.6	139.7
6월	213.7	302.2	33.6	50.0	141.0	148.8	156.4	162.8	126.8	156.4	148.4	147.9
7월	220.3	326.8	28.5	44.8	135.5	143.7	169.8	177.7	122.8	151.5	149.0	149.7
8월	220.6	328.2	34.9	58.2	132.5	140.5	148.3	154.1	156.6	195.8	143.8	145.8
9월	215.9	323.8	31.7	55.3	132.3	140.6	183.8	193.4	121.1	152.0	135.5	138.3
10월	215.7	337.9	30.5	55.0	130.8	137.7	153.7	162.4	206.3	259.6	142.1	146.1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임진국
- ◎ 과제 책임자 : 허창회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홍수표, 최동렬, 반치호, 유영신,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이유리, 이유경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50, 팩스 : (042) 612-8209